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것을 좇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세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2호 2012년 7월 1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의 입자 출현으로 우주창조 비밀 푼다?

미 언론,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힉스 입자' 발견 파장 보도

"태초에 '신의 입자'가 있었다. 그는 우주와 함께 태어난 모든 입자에게 명했다. '입자들이여, 질량을 가져라'라고. 16개 입자들에게 각각 질량을 부여하고 난 신의 입자는 신비롭게도 출현히 사라졌다. 입자들은 신의 입자가 내린 명에 따라 각각의 질량을 받아들이고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간을 비롯해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생겨났다."

많은 과학발전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아예 뒤집는 데서 시작했다. 뉴턴의 고전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고전역학은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계가 명확했다. 이를 해결한 게 상대성이론이다. 덕분에 빛만큼 빠른 물체의 움직임도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의 생성 원리나 시작에 대한 과학, 즉 물리학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스티브 호킹과 같은 천재 과학자도 구체적으로 창조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위 '힉스 입자(the Higgs Boson)' 존재가 입증 가능하면, 인간은 또 다시 하나님의 영역에 가깝게 들어서게 된다. 힉스 입자가 바로 우주에 질량을 부여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일단 과학의 위대한 비약(The Higgs boson: Science's Great Leap Forward)라고 커뷰스토리로 힉스 입자 발견의 파장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지 역시 물리학계에서 지난 40년 동안 힉스 입자 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와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보도해주고 있다(Evidence of Higgs Boson 'God Particle' Disprove Religion or Support Creation?).



힉스 입자 발견자 힉스 교수가 거대강입자가속기 앞에서 있다.

20세기 물리학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불렸던 힉스 입자가 마침내 발견됐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조인 칸델라 대변인은 "힉스 입자가 분명한,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동 연구소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거대강입자가속기(LHC)로 힉스 검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99.99994%의 확률로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폭발(빅뱅) 직후 엄청나게 뜨거웠다. 이때는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우주가 식어가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기기도 했다. 원자핵이나 전자를

이루는 근본 입자 12종은 질량을 이때 얻었다. 빛과 같은 입자는 여전히 질량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영국 에든버러대의 힉스(Higgs) 교수는 우주가 식어가면서 각각의 입자에 질량을 전달해준 또 다른 입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입자를 힉스 교수의 이름을 따 '힉스 입자'라고 불렀다. 힉스 입자를 발견하면 우주 빅뱅부터 현재의 소립자 물리학까지 현대 물리학으로 빈틈없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발표로 전 세계 물리학계가 들쭉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물리학으로 창조의 비밀을 밝힐 수 있으니...

(3면으로 계속)

동성애 홍역 올해도 계속... 전통적 결혼정의는 지켜

크리스천포스트, 220회 미국장로교총회 "338 vs. 308로 지켜냈다" 보도

지난달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 220회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점에 올랐다. 바로 지난해 총회 때 상정됐다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졌던 '결혼 정의 변경 조항'이 그것이다. 이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는 거의 4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던 숨막혔던 미국장로교 총회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했다(Presbyterian Church USA Rejects Same-Sex Definition of Marriage by Narrow Vote).



제 220회 미국장로교 총회가 지난 달 30일부터 7월7일까지 열렸다.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이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진영은 '시민 결합'이나 '주법에 따른 계약'이라는 무미건조한 정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전통적인 결혼 정의처럼 '두 사람간의 결합'이라는 정의로 대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 사항은 지난 219회 총회 당시 본건으로 토론했지도 못한 채 부결됐던 사항이다. 이는 한 대의원이 본건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적 결합'과 기독교적 결혼제도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위원회 안 및 소수의견서 모두를 향후 연구과제로 넘기자는 제안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찬성 348, 반대 324, 기권 6표의 근소한 차로 안전 자체를 다음 총회로 보류키로 한 것이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 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총회 때 1997년 이후 4년

째로 시도됐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제 인준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자여야 한다. 지리기관(당회 혹은 노회)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자는 제안이었으며, 표결에 부쳐져 찬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국 지난해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해 공식 실패했으며, 이로써 미국장로교 내 동성애자들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220회 총회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지켜냈다. 즉 338 대 308로 동성결혼 지지 진영의 확적을 물리친 것이다. (14면으로 계속)



2면

인간의 영혼, 외계로부터 왔다?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규동 목사(요한동경기독교교회)



15면

가정사역 칼럼
김정진 사모(FBM 디렉터)



16면

2012 선교올림픽...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연주일정

캘리포니아(LA)

7월 25일(수)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7월 27일(금) 오후 7:30
LA 사랑의 교회

캘리포니아(세리토스)

7월 28일(토) 오후 7:00
세리토스장로교회

캘리포니아(밸리)

7월 29일(일) 오전 11:00
밸리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7월 29일(일) 오후 7:30
리버사이드 한인침례교회

네바다(라스베가스)

7월 30일(월) 오후 7:30
Community Lutheran Church

텍사스(달라스)

8월 2일(목) 오후 7:30
세미한교회

테네시

8월 3일(금) 오후 8:00
멤피스 한인침례교회

조지아(콜롬버스)

8월 5일(일) 오전 11:00
반석장로교회

알라바마(어번)

8월 5일(일) 오후 7:00
Auburn United Methodist Church
(어번한인감리교회)

조지아(아틀란타)

8월 8일(수) 오후 8:00
실로암 한인교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8월 9일(목) 오후 8:00
클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노스 캐롤라이나

8월 10일(금) 오후 8:00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

버지니아(리치몬드)

8월 11일(토) 오후 7:30
엠마오 연합감리교회

메릴랜드

8월 12일(일) 오후 7:00
뱌일교회

펜실베이니아

8월 14일(화) 오후 8: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뉴저지(파라루스)

8월 15일(수) 오후 8:00
아를라 연합감리교회

뉴욕(퀸즈)

8월 16일(목) 오후 8:00
뉴욕장로교회

찬사의 메아리 맑은 영혼의 몸짓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이 온다!

월드비전 신명희합창단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World Vision®

2012 전 미주 순회 콘서트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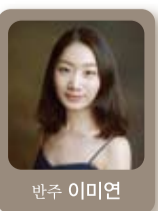
※이 공연은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음악감독 김희철



진행지휘 최현주



반주 이미연

전세계 음악 전문가로부터 '찬사의 메아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월드비전 선명희 합창단이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주 한인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소프라노 홍혜경과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과 같은 많은 음악인을 배출한 50여년 전통의 월드비전 선명희 합창단은 수정 같은 목소리와 최상의 하모니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전세계의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할 뉘 공연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에 한인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드비전(구 선명희)은 통일교와 무관한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이며, 월드비전 선명희합창단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공동주최: World Vision 월드비전 · 한국일보 공연문의: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육이오-1950 / 웹사이트: wvkor.org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입니다.



시론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목회서신에서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하였다.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며 배우고 또 배우라는 뜻이다. 어느 날 무심코 그 본문을 읽다가 당시 에베소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디모데에게는 좀 적절치 않은 권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다. 이미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은가! 그 정도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울 자신이 순교의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상황인데다가 언제 그 칼날이 방향을 바꿔 디모데에게 향할지 모르기에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뿐 아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악성종양(암)과도 같은 교회를 변질시키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교회였다(2:17). 그런 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배우고 확산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가 그의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어릴 때 받은 거짓없는 신앙(1:5)이었다. 환란과 핍박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순수한 믿음뿐이다.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순전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공격을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바울의 교훈은 바울 사후 초대교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영적 아버지 바울로부터 배운 교훈과 삶의 모범들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살피고 보여주었다. 특히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에게는 자기 고향에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다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내버렸을 때 부시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강고한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한 시청각교육을 받았으리라.

유명한 인도의 간디는 현대인의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 죄.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배워도 피상적으로 배운다. 다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배우는 과정을 생략하고자 한다. 둘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죄. 배우기도 힘들어 하는데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지식인일수록 배운 지식으로 살려 하지 않고 말만으로도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가르치지 않는 죄. 배운 것을 가르치지 전에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이런 현대인들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목회현장에 있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를 맞이하여서는 이런 현대인들의 특징이 더욱 분명해져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 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현상은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예배와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은 늘 교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리가 되고 있다. 교인들은 가급적 설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시간은 짧기를 바라고 과제물은 없기를, 그리고 모든 과정은 쉽기를 바란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확산한 일에 거하지 않고는 시대를 거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시대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뿐인 교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하게 하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깨어 있는 신자가 되게 할 책임이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지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져 웬만한 병은 넘겨내듯 이겨내듯이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져서 가라지교인이 아니라 알곡교인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해야 한다.

“인간 영혼, 외계로부터 왔다” 주장

미 언론, 톰 크루즈 부부 파경으로 이끈 사이언톨로지 신앙원리 해석 보도

사이비 종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만 한국에서는 포항 모 교회 신도들이 집단가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았다. 87년 32명의 집단자살로 충격을 던진 오대양사건이나 9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사건도 아직 기억에서 생생하다.

이 같은 사례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남녀가 한데 모여 알몸으로 집회를 여는 사교가 극성을 부리는 등 지하 사교 조직이 들끓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사교 교주의 업색행각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미국 역시 700여개의 사교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음진리교 사건으로 흥역을 치른 일본도 해마다 100여개씩 늘어나는 신흥종교 문제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이비 종교가 심각한 이유는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헐리웃 스타로 너무나 잘 알려진 톰 크루즈 부부의 파경, 역시 가정보다는 잘못된 사이언톨로지 신념 때문에 이혼으로 치달고 있다. 따라서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가 무엇이냐 어떠한 신념을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처하고 방어할 수 있다.

헐리웃 톰스타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파경과 관련, 그 중심에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교의 잔인한 ‘입교 과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이언톨로지 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연예전문 매체 TMZ닷컴은 4일, 케이티 홈즈 측근의 말을 인용해 그가 톰 크루즈를 상대로 이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생애까지 이어진다. 그는 죽음이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영혼(thetan)은 자신에게 육체가 없음(죽음)을 발견하고는 즉시 새로운 육체를 찾아 나신다. 그들은 임신한 여자를 발견하고 새로이 탄생하는 아이들에게 미끌어져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서 출산한지 2-3분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는 시간은 아이가 첫 호흡을 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언톨로지교에

다. 또한 인간의 악한 심성을 ‘테탄’이라고 부르는 정신,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몸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정신요법이론인 ‘다이아네틱스(Dianetics)’를 기본 교리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리웃 톰스타 톰 크루즈, 제니퍼 로페즈, 윌스미스 등을 비롯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신자를 보유한 정도로 기세가 막강하다.

한편 지난 2005년 경찰의 도움으로 사이언톨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전 신자 마크 헤들리는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송에 대해 “그의 상태는 톰 크루즈 한 사람이 아닌 사이언톨로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부부간의 성격상의 이혼 사유가 아닌, 케이티 홈즈와 사이언톨로지와의 법정 공방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사이언톨로지는 톰 크루즈라는 걸출한 헐리웃 스타의 입성으로 그 세력을 문어발처럼 확장하고 있다. 헐리웃에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지름길로,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하면 그만큼 스크린의 스타로 발돋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현재 헐리웃에는 45% 가량의 총사자들이 사이언톨로지의 멤버라고 하며, 사이언톨로지의 손길은 아직도 배우를 지망하는 청년들을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경계는 사뭇 엄중하다. <3면으로 계속>

심리치료요법서 출발 54년 공상과학소설가가 교주돼

e-머신 활용 정신치료하고 유희 믿어

헐리웃 45%가 교인...스타지망생 공략

소송을 벌이는 이유가 다름 아닌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전처인 니콜 키드먼과의 사이에서 입양한 두 아이들을 지난 2005년 사이언톨로지교에 입교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케이티 홈즈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입교식이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

전 사이언톨로지 교도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언톨로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교회 어딘가에 있다는 ‘영혼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e머터’라는 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제는 ‘e머터’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이 과정 자체가 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케이티 홈즈의 측근은 “입교과정을 지켜본 케이티가 너무나 두려워했다”며 “아마 수리에게 같은 과정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혼을 결심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미 언론들도 본래 가톨릭 신자였던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와 결혼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사이언톨로지교로 개종은 했지만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 계통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톰 크루즈와의 갈등이 그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일 것으로 추측하

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언톨로지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기에, ‘e머터’와 같은 전기 장치가 입교의 절대 조건이자, 영혼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이언톨로지는 1954년 공상과학 소설가 로널드 허버트가 창설한 종교로,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과학기술로써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로널드 허버트의 독특한 영혼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모두 “테탄(thetan)”이란 외계 영혼이 붙어있는데, 이는 7천5백만년전에 제두(Xedu)라는 “우주” 독재자를 피해서 외계인들이 지구로 도망쳐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 허버트는 이 허무맹랑한 이론 하나만으로 창립한 후 2년 사이에 신도수를 4 배나 불렀다. 허버트의 독특한 외계 영혼론은

서 명확하게 밝혀낸 죽음의 매카니즘이다.

결국 인간은 테탄, 마인드, 육신이 라는 세 가지 객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허버트는 ‘육신이 죽음을 피하려면 그가 개발한 e-머신을 활용해서 정신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e-머신’이 바로 일종의 면죄부이자,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결국 사이언톨로지는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와 유희를 믿고 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힉스 입자' 존재 증명도 하나님의 영역

(1면에서 계속)

그것도 질량을 가리키는 "125-126GeV(기가전자볼트) 영역 내에서 힉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99.99994%"란 내용이었다. 이는 300만번 실험할 때 한 번 오류가 발생할 확률. 과학적 발견으로 인정하는 신뢰수준(99.9999%)을 넘어선 수치다.

입자물리학에 따르면 세상의 입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페르미온, 서로 친하지 않아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다른 부류는 보존이다.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려고 한다. 페르미온은 주로 물질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존은 우주의 여러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입자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질량이 있어야 한다. 1964년 영국 물리학자 피터 힉스가 그 질량을 부여한 존재를 힉스라고 제안했고, 물리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표준이론'이라고 부른다. 결국 힉스는 표준이론의 근간이자 질량의 근원이다. 힉스가 없으면 우주의 질량은 0이다.

표준이론에서 페르미온은 12개, 보존은 4개다. 지금까지 모두 발견됐다. 이제 힉스만 남았다. 힉스의 존재만 확인되면 표준이론은 완벽한 이론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물리학자들이 힉스 찾기에 애를 태우고 있는 이유다.

거대강입자가속기(LHC)는 인간들이 힉스를 찾기 위해 건설한 지름 8km, 둘레 27km에 달하는 대형 실험실이다. 이 설비는 양성자 2개를 강력한 자기력과 전기력으로 빛의 속도 가까이 가속시켜 엄청난 힘으로 서로 충돌하게 한다. 그러면 우주 초기의 대폭발(빅뱅) 당시와 비슷한 상태가 재현된다. 힉스는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고 스스로 붕괴하면서 빛 입자인 광자(光子)를 방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LHC에서는 광자가 특히 많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힉스 입자가 발견된다면 수수께끼였던 질량의 기원을 푸는 것인 만큼 엄청난 학문적, 기술적 이정표가 된다. 그만큼 표준이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힉스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입자다. 그것도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표준이론은 모든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물리학적 해석이다. 표준이론은 자연계에 있어 4가지 힘(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 중 중력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세운 일반상대성이론이다. 또한 표준모형으로 설명하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의 4-5%에 그친다. 나머지 95%를 구성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표준모형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도 표준모

형은 인류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힉스 입자의 존재 가능성만 증명된다면 물리학으로 우주의 생성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입자물리연구소가 새로 발견된 입자가 힉스로 최종 확인되면 힉스의 가설은 48년 만에 실험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힉스의 존재가 밝혀진다는 것은 표준모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 영역인 우주창조의 비밀을 푸는데 성큼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즉, 물질의 기본 입자를 분류해 이들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표준 이론을 통



해 우주의 생성, 존재, 소멸의 이유를 물리학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힉스 입자의 발견에 세계가 흥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지금까지 힉스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건설해야 하는데, 의회의 예산 편성을 두고 항상 논란이 벌어졌다.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이 실험이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종교적인 이유가 쟁점의 대상이었다.

만약 발견한 입자가 힉스가 맞다면 표준이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는 곧 현대 물리학의 완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되거나 존재하는 이유를 물리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힉스가 아닌 새로운 존재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표준 이론에서 예측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모르는 또 다른 힘과 원리가 있다는 뜻이다.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상대성이론이나 뉴턴의 법칙이 완벽하게 잘못됐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물리학계는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려고 한다. 물리학계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

기 때문이다. 힉스의 존재가 입증되면 수십대에 이르는 초거대 선형가속기를 건설해 힉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힉스를 대상으로 생산, 연구하면 물질의 구성이나 붕괴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창조라는 신의 영역에 한발 더 다가서는 셈이다. 선형가속기 유치전도 치열하다. CERN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형가속기 건설에는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지만 얻어지는 과학적 결과물은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

비라고 말한다. 종교는 바로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힉스 입자' 존재 증명은 신비의 영역에 들어서는 계속되는 인간의 시도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알려고 발전시키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계시(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 주신 것) 안에서만 인간이 알 수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굉장한 것 같고 또한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에 비하면 인간이 알고 하는 일이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직도 인간은 신비-하나님의 섭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며 결코 오만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허락한 한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묘한 세계의 지평도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인간 영혼, 외계로부터 왔다" 주장

(2면에서 계속)

"사이언톨로지"는 종교가 아니다. 다만 종교의 탈을 쓴 채 세계를 지배하려는 기업집단일 뿐이다"라고 독일 기독교 진영이 전면적으로 그 확산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최근 집권 기민연(CDU) 소속 기


독교청년연합이 미국 첩보영화 '미션 임파서블'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주연배우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 신자라는 게 그 이유이다.

결국 사이언톨로지는 심리치료요법에서 출발했으나 로널드 허버드가 54년 미국에서 교단을 설립해 종교로 정착했다. 초자연적 치료와 영혼유회 등을 신봉하고 있으며 신도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해 사회

적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1989년에 사망한 허버드는 "내가 원하는 사이언톨로지는 이런 게 아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 순수한 사이언톨로지의 이론을 상업화했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 정도로 사이언톨로지는 어느새 사이비 종교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PSALM
PSALMIS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악기 시 75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일 좋은 악기가 바로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악기는 소리만 냅니다. 새들도 소리만 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소리와 뜻과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동물과 식물보다 더 좋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와 마음과 사단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악기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비파와 수금으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뜯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영화롭게 하는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성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려고 새벽마다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성전으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아침마다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에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곳에서 찬양하지만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가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높임 받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이 땅에서 낮은 자요, 이웃을 섬기는 자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귀한 섬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수고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꿈을 가지고 삽시다.

9절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비뿔어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으시며 그를 변화시키신 것같이(창32:28), 우리는 다 야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닮은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9절에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이웃을 향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시 50:23). 우리가 복되게 살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철저한 약속 속에 살면서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할까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 모든 것이 복을 받은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새벽마다 깨워 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인류를 대표해서 나아와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지요. 또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거룩한 생명이 영원히 나타나는 거룩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찬양의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에게 삶으로 올려 드립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행복한 악기로 삽시다. 아멘.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12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9월 7일(금) 오후 6시
- 3 입학 시험 : 2012년 9월 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성 훈련 : 2012년 9월10일(월) - 12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사기꾼들의 세상

오래전 일이다. 지인이 없는 코트디부아르(Repulique de Cote D'ivoire)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오래전에 집회 관계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기에 연관된 누가 보냈나

싶었는데 전혀 생소한 외국인이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8백만 불의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었고, 자녀가 없는 상황

서 자신도 암에 걸렸다고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유산을 좋은데 사용하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우연히 나의 이 메일을 알았기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 만약 이 일을 도와주면 총액에 2-30%를 사례하겠다고 했다.

이 무슨 일인가 싶다. 지난밤의 꿈이 이런 소식을 듣기 위한 것이었나 싶다. 돼지들이 여러 마리 보이는 꿈이 아니었던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액수이니 말이다. 평소에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릴레이경기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아하, 돈이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수단도 되거나 싶다. 한 통의 메일은 며칠 동안 아름다운 꿈과 행복의 부드러

운 나라를 펴게 만들었다.

마침 그곳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전화하니 한 마디로 사기입니다. 아주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그의 한 마디 대답은 찬란한 꿈을 순식간에 산산 조각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메일을 처음 받은 지 십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줄기차게 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 곳에서 온다. 모두가 하나님의 독실한 신자라는 이름을 빌자하여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는 더욱 진화하여 부락을 거칠할 수 없는 가까운 친구의 이름으로 온다. 지금 영국의 무슨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여권 및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하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요즘

큰 곤란을 느낀다. 구독하는 책대금을 보내기 위해 어설피게 인터넷 뱅킹을 가끔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처럼 사기꾼들로 인해 점점 복잡하게 되고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 인터넷 뱅킹이 거짓된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보안망을 설치하고, 더욱 복잡하게 장치를 하여야 되기 때문이라. 아무튼 거짓된 사람들로 세상은 점점 더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어디 사기꾼이 그런 사람 뿐이겠나 싶다. 세상에는 고급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사기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의 사기는 파괴력이 한층 더

크고 굉장하다고 언론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신문에 자애로운 미소로 인터뷰하는 정치가, 그 자애로운 미소로 감추고 있는 저 탐욕의 옹골로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미국에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던 시절, 입국심사원이 입국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친구가 가르쳐 준대로 투어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던 때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면서 말이다. 이런 일도 일종의 사기가 아니겠는가? 평소에는 정직하게 살자 하다가도 공항 면세대를 통과할 때는 목비권을 행사할 때가 없지 않았는가? 단 얼마라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노파심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별수 없는 동류가 아니겠나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푸/ 른/ 초/ 장

이원호 목사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대로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왕이 먹는 것을 먹으려하지 않았고 왕이 마시려하는 것을 마시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뜻'에 해당하는 '립보'는 문자적으로 '그의 마음(in his heart)'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인입니다. 마음은 감정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마음은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좌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통치자들은 그가 고향과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려고 그의 이름마저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에 의해 바뀌었지만 자신이 믿는 것이 어느 나라라도 단념하지 않았습니 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당당하고 의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 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단1:8) 뜻을 정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결연한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높이 쓰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첫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라.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군사력만으로는

독판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환관장이 들어줄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물을 얻게 하였고 열흘간의 시험의 결과로 다니엘의 청원을 수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

비로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시험을 통해 신앙정절을 지킬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보존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하나하나가 극복하기 어려운 태산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태산 같은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평지와 같이 됩니다.

둘째, 어떤 일을 결단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단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결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유용한 결단, 최선의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결단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성급한 결단은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그 결단은 종종 나쁜 결과나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가져다주거나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반대로 바치겠다고 고백한 사사 입다의 결심 그리고 전쟁 중에 불필요한 금식령을 내려 군인들을 피곤하게 한 사울의 결단. 실로 결단이 가치있는 결단이 되려면 충

결단.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아름답습니다.

3.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운 결단이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은 실로 결단의 연속이라 해

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카와 갈라질 때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세에 얻은 그의 생명보다 귀한 그의 독자 이삭을 반대로 바치라는 명령까지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실로 그의 삶은 자기부인과 포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그가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먹을 것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사하고 손에 쥐고 누리고자 애쓰며 그것을 손에 쥐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오래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이를 누리고자 집착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다른 모든 이들이 원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 우리 손에 쥐어진 것까지도 포기하고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는 진정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욕망 자기욕구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의 탐닉이 가득해서는 결코 바른 신앙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분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부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확고한 결단 다니엘서 1:8-16

▶ **밥(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설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벨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 관점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벨복음의 길과 의미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밥이카데미에서 개간

▶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의 제사의식 등까지도 알기 쉬운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과 사진으로 설명해 준다.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장재일 목사**

- ▶ 부산신대목회원
- ▶ 대구성경대학성경전리역시학과의장
- ▶ 형성시대학부 D 과정
- ▶ 연세대학교회림목사
-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연구위원
- ▶ 연세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

▶ **SEOUL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 홀
www.sbf.or.kr

▶ 한국인터넷뉴스 센터, 출판물감사 ▶ 홈페이지 www.gumnan.co.kr ▶ 주소 서울송파구구리동 104-3 ▶ 전화 622747-1004 ▶ 출판물감사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1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음세대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무서운 아이들' 또는 '막가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문화가 낳은 불행이요, 아픔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원가는 무법천지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각 경찰청에는 '117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문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주 동안 접수된 신고 수만 8,643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내용은 성폭력, 폭행, 현금 갈취 등 아이들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마치 강패들처럼 말 그대로 아주 막가는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맞고 머리채를 잡혀 휘둘리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길을 가던 어른이 아이들의 행실에 참견하면 험한 욕설과 폭행으로 봉변을 당한다고 하니 과연 세상이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밖은 물론 교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방을 해야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문제해결을 제시하려면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적인 면이요, 둘째는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해 가고자 합니다.

을 부모가 아닌 남과 함께 지내는 동안 과연 우리 자녀들의 인간성 형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과연 돈을 벌기 위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 보내고 음악, 체육 등 레슨 시키는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부모를 통해 받는 관심과 사랑과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생활태도와 도덕성과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잘하고 책을 많이 읽고 공

할 것입니다. 이어 둘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문제해결을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IT문화와 사이버문화가 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포스트모던문화와 극단적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문화로 연결되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문화의 콘텐츠 속에는 거침없는 분노와 파괴가 대척 없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의 대세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

상적인 존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타락한 사탄의 문화에 종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이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없이 분노와 파괴와 폭력과 성적문란과 살인까지 죄의식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지켜보는 데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항상 감시당하는 것과 같은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잠재의 식은 후에 아이들을 기회주의자처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감독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부나 독서나 리서치 하는데 사용하고 게임은 반드시 부모가 검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는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나 아이의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임 등을 권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가 속제를 다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빠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일수록 가능한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교육을 설정해야 합니다. 피아노나 현악기를 시작하는 것

부모의 관심과 삶 통해 생활태도, 도덕성, 신앙 배워 제자훈련은 가정에서부터...하나님의 도 떠나지 않게

교육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산아제한으로 인해 대체로 형제자매가 거의 없이 혼자 크거나 아니면 둘 정도의 형제나 자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이 전혀 길러지지 않은 채, 학교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인성 교육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훈련보다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학생으로만 경쟁심을 부추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차별 당하는 것들로부터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려서부터 형제자매도 없는데 부모마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교습소에 보내 음악레슨이나 골프레슨 등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배우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의 대부분의 생활

태도 생활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섬김의 태도가 뛰어난 아이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큰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책을 가까이 하면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도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공부하면 아이도 공부합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아이도 성실합니다. 부모가 도덕성이 있으면 아이에게도 도덕성이 배양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교육은 보고 배우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결국 그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키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적어도 자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는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게임들입니다. 분노와 파괴와 폭력은 은연중에 자신의 캐릭터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는 채팅을 통해 사이버세상에서 만난 사람과 게임을 하다 게임에서 지면 실제로 만나 그 분품이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그냥 사람을 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세상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람과 실제로 만나 상당히 많은 연령의 차이가 있음에도 상관 없이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추종하는 세력과 맞지 않을 때에는 얼굴도 없고 인격도 배제된 누군가가 중상모략을 일삼고 결국 자살까지 몰고 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즐기는 영화들의 내용을 보면 충동적인 사운드와 파괴적인 액션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보통이고 사랑의 가치의 마치 파리 목숨처럼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존재를 부각시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숭고한 인간의 존엄보다는 우

도 줍니다. 관악기는 좀 더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더욱이 혼자 하는 악기 보다는 여럿이 앙상블을 만드는 악기가 좋습니다. 후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와 협력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간성 교육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흠과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흠으로부터 왔으며 흠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결국 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대문명이 사람을 흠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데서 인간성 형성에 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화단이나 잔디밭을 아이들과 함께 가꾼다거나 가능한 자주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함으로 자연과 친숙하고 가족끼리의 풍성한 관계형성과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에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바쁜 신 부모님들이여!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차세대연구소: (714)699 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water baptism)를 주는데 장로교는 왜 뿌리는 세례를 주는지요? 그리고 장로교는 유아세례(infant baptism)를 주는데 신앙고백도 없이 세례를 주어도 되는지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토렌스에서 노 집사

A: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일생에 단 한번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에게 절복임을 받았다는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시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가입의 표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 것입니다. 세례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최초로 집행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 3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세례는 회심 뒤에 오지만 실제로는 세례 시 외적인 표징과 내면의 효과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8장의 시몬 마구스의 경우는 성령 세례없이 물세례를 받았고 고넬료는 물세례 전에 성령강림을 경험했습니다(행10:44-48).

세례는 기독교의 각 교단마다 형식이 다르기에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의 일반적 형식은 물에 잠기는 침수였는데 이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실에서도 기원이 나오거나 또는 세례를 기적으로 흥해를 건넌 일에 비유한 사실에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고전10장). 그러나 물을 뿌리는 형식도 일찍부터 병자와 죽어가는 자에게 그리고 침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

세례형태, 유아세례 교단마다 달라

는 세례도 침례와 동일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과연 이 많은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다 세례를 주었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은 거리가 멀기에 가서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침수로 보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급수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교단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씻음, 뿌림 등의 폭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왕하 5:14(70인역), 눅11:38, 막7:2, 9:10). 사람이 군대에 가면 민간인 의복을 갈아입고 군복을 입어 그 사람이 외적으로 군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 표징이지 가톨릭처럼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외적 표징 그 자체에 구원의 신비성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종류나 양이 예식의 유효성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보는 것은 복음정신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아세례가 비 성경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회개와 믿음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데, 유아세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성경에서는 유아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금하는 사례는 더 찾지 않습니다. 신앙성경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5번 기록되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어린 아이가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아세례에 대한 보편적 관행에 대해서는 터틀리안 같은 신학자는 격렬히 저항했는데 역으로 이는 유아세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반증을 한 셈입니다.

www.sbm.or.kr

크리스천이 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명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명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향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크리스탈 우유

뉴욕곰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명화면: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태권도 검도 수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힐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푸 타이(Phu Tai)



푸타이 족은 태국과의 국경 부근 메콩강의 동쪽 거친 언덕에 살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푸 타이(Phu Thai)어이며, 타이 언어군(Tai linguistic family)의 라오어 하위 언어이다. 그러나 같은 푸타이 언어에도 많은 방언이 존재한다. 푸타이어는 성조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타이어나 라오어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언어이다. 타이족은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정복하면서, 10세기 이전에 많은 타이족들이 태국과 라오스에 정착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푸타이족이 이미 저지대에서 고산지대로 옮겨가던 타이족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 푸타이족은 다른 종족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피해왔다.

라오스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당하고 여러 번의 내전을 겪으면서 때로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과의 정치적 경쟁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쟁과 식민지 경험은 크나큰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삶의 모습

푸타이족 사람들은 본래 농부이다.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이 쌀농사를 짓는 계곡에서 생활하며, 라오족과 같이 계단식 논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산허리에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베어버리고 태우는" 방법(화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푸타이족 마을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친구들로 구성된 20-30가구가 한 마을을 이룬다. 만약 새로운 길이 생겨서 외부에서의 접근이 쉬워지면 전체 마을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버린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대나무로 집을 지으며 대밭 위에 고상식 가옥을 세운다. 각 마을은 계곡을 끼고 형성된

다.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푸타이족 사람들이 라오스 국민들이기는 하나, 라오스 정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한 내지 못하고 있다.

푸타이족 사회는 연령, 직업, 거주지역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조직된다.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장인, 상인, 도시의 공무원 등보다 낮은 계층에 속한다. 성직자들은 분리된 집단이다. 결혼관습은 이슬람교나 타이족이나 라오족의 결혼관습과는 뚜렷이 구분되며 무엇보다도 도덕적 윤리와 그 기준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종족 생활의 정상적인 규범에 반하는 범죄소송이나 이혼은 거의 없다. 타이족과의 결혼은 거의 없지만 라오족과의 결혼은 종종 있다.

푸타이족 만의 특징적인 관습과 의상이 있다. 여성들의 의상이 특

이하며, 붉은 색으로 장식한 검정 군주의 지배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푸타이족 사람들이 라오스 국민들이기는 하나, 라오스 정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한 내지 못하고 있다.

푸타이족은 대개 매우 부지런하다. 여성들은 질 좋고 독특하면서 화려한 디자인을 지닌 수공실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짙은 갈색이나 자주빛 바탕에 단색으로 줄무늬를 넣은 치마는 이들의 특제품이다. 여인들은 또한 이불, 숯, 배개 등에 정교한 수를 놓는다.

신앙

푸타이족은 25개의 신들을 섬기는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권적인 창조주 신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의 마을 수호신들을 따른다. 푸타이족 사람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소와 돼지의 피로 영혼을

을 달래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리게 된다고 믿는다.

라오족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푸타이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종교와 테라바다(Theravada) 불교가 혼합된 종교를 믿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 존재(영혼들)와 물체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들은 거의 모든 물체와 사람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 중 토지의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푸타이족 언어로 된 성경번역이 시급하다. 진리의 복음만이 푸타이족을 영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현재 푸타이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으며 라오스의 푸타이족 중에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 호텔, 객실에 태블릿PC 성경 비치

[미션라이프]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룹 계열 호텔 인디고가 객실에 종이책 성경 대신 성경이 내장된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비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CNN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호텔은 이달부터 148개 객실에 성경책이 포함되어 있는 킨들 터치를 객실에 구비해 두고 있다. 호텔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 성경 뿐 아니라 아마존의 킨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다른 책을 구입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은 e-북은 퇴실과 동시에 삭제된다.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고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다른 호텔에도 성경책이 내장된 킨들을 비치할 계획이다.

종교계는 호텔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했다. 1899년 설립된 호텔이나 학교, 군부대 등에 성경책 배포 운동을 해온 테네시 소재 전도단체 기드온스의 대변인 켈스티브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어떤 것도 좋은 것"이라며 "이는 환상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발령 1년

동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긴급구호가 발령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가뭄과 분쟁, 국제사회의 무관심, 저조한 기금모금으로 여전히 1000만명의 아동과 주민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은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긴급구호 선포 1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6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난해 식량을 찾아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거나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식량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년간 이들 지역에서 식량, 식수, 보건, 영양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긴급구호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를 통해 340여만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이브더칠드런 90여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이기도 하다.

소니아 잠바키즈 세이브더칠드런 소말리아 프로그램 긴급구호 총괄책임자는 "소말리아에서는 오늘도 많은 아동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기금 모금이 지연돼 우리가 지난 1년간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곳에는 또다시 비극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숙자 선교하던 여 목사도 체포당해

미국 남부 텍사스 주의 샌안토니오에서 노숙자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던 로렌스 스미스(43)라는 여성 목사가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스미스 목사에 적용된 정확한 혐의는 불법노숙혐의. 스미스 목사는 지난해 7월에도 노숙자 전도를 하다가 거리에서 잠을 청하다가 체포된 바 있다.



스미스 목사는 연합감리교 목사로 가난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자신도 노숙 생활을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오래 동안 노숙자 전도를 해왔다.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수자와 소외 계층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운동가이기도 하다.

당국은 그녀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체포된 후 15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중산층 감세 1년 연장" 의회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중산층 감세정책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가을 대선에서 맞불을 공화

당의 밋 롬니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한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저소득 가정에 한해 감세정책의 1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미국내 소기업 소유주의 97%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아닌 일자리 창출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부자 감세는 끝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감세정책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마련했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적용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25만달러를 기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과거처럼 모든 소득 계층에 감세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토대로 한 연장안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 의회가 감세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 법은 내년 1월 자동으로 만료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평등' 카드를 꺼내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고용상황의 개선 부진 등 경기 지표 악화로 흔들리는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UAE, 기내가방에 아기 넣고 입국시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내 가방에 아기를 숨겨 입국하려던 이집트 부부가 체포됐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UAE 샤르자 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은 지난 7일 오전 이집트에서 온 탑승객들의 기내 반입 수하물을 엑스레이(X-ray) 투시 검색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화물을 발견했다.



한 기내 가방 안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확인해보니 가방 안에는 12개월 된 아기가 숨겨져 있었다. 가방 주인인 30대의 이집트 남성과 그의 부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과 입국 비자가 없는 아기를 몰래 UAE에 입국시키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러났다. 다만 아기가 여권도 없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출국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기내에서 3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엑스레이 투시기는 인체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이집트 부부는 모두 입국 비자가 있지만, 아기의 생명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한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여성 올림픽출전 아직도 오리무중

이슬람의 발상지로 매우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사우디 여자 선수들은 반발을 걱정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압력을 받은 사우디의 영국 주재 대사관은 지난 2일 올림픽 출전권을 탄 여자 선수들이 이달 말 열리는 런던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에 고무됐지만 여자 선수들의 속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올림픽이 끝나고 강경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탄압받고 비밀리에 하던 운동마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여자 축구단의 주장인 라흐 압둘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너무 세계 나간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렵다"면서 "완전히 운동을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성공할 때에 막다른 길에 몰리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과 동료들은 충분히 훈련하지 못해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압둘리는 여자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뒀다. 2006년 생긴 이 팀 선수 25명은 한 선수의 집 정원을 운동장으로 바꿔 매주 4차례 훈련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여성들은 경기장에 들어갈 수도, 운동 장소를 빌릴 수도 없다. 공립학교에서 여학생은 체육 교육을 받지 않는다.

압둘라 같은 여자 선수들은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런던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압둘리는 "잘한다면 관중을 거다. 하지만 성적이 나쁘면 '거봐, 억지로 우겨서 가놓고 졌잖아. 나라 망신을 시켰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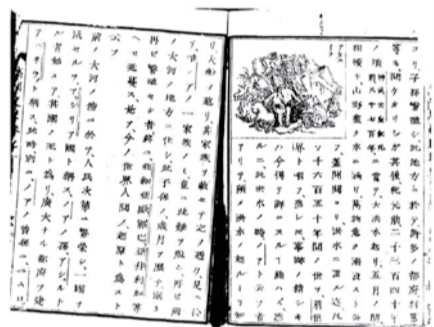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6. 성경의 쿼크중동(7) - 창조와 아담의 타락 사건이 정말로 있었는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아담의 타락 사건이다. 역사가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흠으로 지어진 아담도, 아담의 갈비뼈(옆구리)로 만든 하와도,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처럼 엄마 자궁 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최초의 사람 가인도 살아 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수천 살 된 젊은이들이 즐비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완벽한 창조 세상을 멸망시키고 죽어 왔다고 한다(창3장, 롬5:12). 과연 이 창조와 타락 사건이 역사적 사실일까?

물질의 법칙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바로 열역학 법칙들이다. 이 중에 열역학 제 2법칙은 에너지의 질에 관한 법칙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질서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제 2법칙을 "무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물질세계의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것이다. 새 자동차는 사용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폐차를 해야 한다. DNA 정보도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사 되면서 돌연변이가 쌓여 원래 정보가 손상된다. 달은 매년 지구에서 멀어지고 태양은 점점 유용한 에너지를 잃고 죽어 가고 있다. 이런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열역학 제 2법칙의 예들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칙이 말하고 있는 바이다.

지구 자기장(磁氣場)도 수천년전이 가장 좋은 상태 빅뱅 가설은 열역학 제 2법칙을 완전 무시



성경적인 일본 교과서

아담 창조와 노아홍수의 역사는 명치유신(1868-89)을 계기로 진화론으로 대체 되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발판이 되었고 창조주를 떠난 계기가 되었다.

이 갑자기 250년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모세 시대에는 보통 수명이 70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시90:10)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은 화감을 남기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최고 수명은 아직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환경의 악화과 유전정보의 무질서 등 동반된 결과일 것이다. 범죄 이후 열역학 제 2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확인하게 된다.

(창1: 31). 오직 성경만이 완벽한 처음에서 시작하였다고 법칙에 어울리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완벽한 조건이 깨어진 것을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창3장).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땅(지구)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범죄 사건으로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여 만물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범죄 이전에는 열역학 제 2법칙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범죄 이전에도 이 법칙은 작동하였지만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법칙에 의해 소멸된 부분을 생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

다는 공상과학 소설이다. 이런 과정은 열역학 제 2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설명들이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이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설명을 덧붙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코 열역학 제 2법칙을 뛰어 넘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 열역학 제 2법칙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더욱 빨리 더 무질서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면 빛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 시스템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만들 수 없는 절묘한 것이다. 논쟁만으로도 나오는 작은 세포 한 개는 500만 개나 되는 부품이 조립된 대형 제트 비행기보다 수 백 배나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의 부품들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그것들

이 적재적으로 조립되어야 드디어 가장 작은 생명체 한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은 기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체 존재의 유일한 과학적 설명은 기적뿐이다. 그런데 이 생명체들은 각각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유전 정보 세트와 가지고 있어 창세기 1장의 주장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창4:4, 5).

거절감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기본을 더 건드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양심을 품는 가인입니다. 자신이 드러진 제물이 거절되니 안색이 변하고 할기 충진됩니다. 열납이 거절될 후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에 곧 하나님께서 제물이 거절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뇨?' 하고 이성을 잃은 가인의 상태를 지적하시며 분하여 안색이 변한 그 모습을 선을 행치 않고 있다고 저를 달래시며 경고하십니다.

드린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정신입니다. 생령주시고 계다가 맘껏 농성물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안에서 없고 자신의 제물이 거절된 것과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만 마음에 집중되었는 가인입니다. 부모가 그저 '오냐오냐' 하며 키우려는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라 조금만 심기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가인입니다. 비위를 거스름을 감당 못하는 마마병 중증입니다. 비록 하나님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도의 자기 영광을 구할 때는 예외 없이 나타나 자기 중심적인 가인의 마음과 같이 허가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내 기준에 거슬리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자극되면 화가 납니다. 눈에 거슬리면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걸잡을 수없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습관들이 그대로 내 성격이 됩니다. 화내는 습관이 성격으로 굳어지면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설사 모든 주의 사람들이 최대로 비위를 맞추어 줘도 해도 기분에 따라 꼬투리 잡으려드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 맘대로 되어야 잠시 조용한 독불장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집안의 폭군으로 자라서 속수무책의 민폐가 된 가인을 사람 만들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그의 자랑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빠진 가인에게 애처로운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거십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호랑이가 먹이를 채려고 노리듯 하니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 따위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여고 질투에 불이 당겨진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애꿎은 동생을 죽여 땅에 묻어 버린 것 거슬림에도 도취한 가인입니다.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뻔 뻔스레 얼굴하나 번지지 말고 '내가 동생들보는 자냐?'고 빈정거리며 통명스레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동내 아저씨만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눈곱만큼 도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은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고 참 얼굴도 두꺼운 인간입니다. 자기만 소중한 인간이라 "제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표'를 주셔도 받지 못하고 예전의 동족으로 쫓겨나 후식이라도 누가 죽일까봐 생을 씁니다. 계속 마음을 아파게 악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못난 저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아파게 말씀을 거시며 자비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아들도 놓고 가정을 꾸러가도록 허락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죽기 전이라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상안에 떨어 허나님이 수없이 구해주시려는 손길은 외면하고 종래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공포 속에 있었지요. 분노와 탐욕은 동전안면 같습니다. 과연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임을 생각합니다. 마르다처럼 가인처럼 사역에 올랐지만 작은 교회라고 무시 당할 때, 때로 돌아오는 열매가 눈에 차지 않는다고 섭섭하여 화를 냈지요. 헌신할수록 주님께 원망이 커진다면 나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말입니까? 제 안에 가인을 보십시오. 설익은 벼가 자신도, 사랑하는 주위의 모두를 찢습니다. 빠진 큰 아들 땅자가 제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동생 땅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며 반항했던 모든 세월을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잃어버린 동생들을 함께 찾아 돌보겠습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h3 style="margin: 0;">세계로번거가는 교회</h3> <h2 style="margin: 0;">기타지역 교회안내</h2>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8:00-11:00 28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70	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8:30-11:00 7760 Knight St, Arden, NC 2870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8:00-11:00 326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준 주일: 8:00-11:00 1550 Woodman Rd, Lawrenceville, GA 30047	맨델교회 담임목사: 전용배 주일: 8:00-11:00 2165 St. Andrew Lane, Decatur City, GA 30042	보스ตั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8:30-11:00 2 Main St, Andover, MA 01810	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8:30-11:00 1620 Dempsey Ave, Hyattsville, MD 21038	살람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8:00-11:00 701 Scoville Rd, Charlotte, NC 2827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8:00-11:00 6037 Pacific Ave, Cary, NC 27513	사이버밸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8:00-11:00 10201 Research Dr, Raleigh, NC 27615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8:00-11:00 1805 Kirby Blvd, Littleton, AR 72078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8:00-11:00 8230 Green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8:00-11:00 3410 Alvin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8:00-11:00 730 Wheeler St, Hershey, PA 17033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한 주일: 8:00-11:00 426 N. 5th St, Kansas, KS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8:00-11:00 4913 Marlboro St, Alexandria, VA 22303	주여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 8:00-11:00 10201 Research Dr, Richardson, TX 75081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8:00-11:00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8:00-11:00 280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8:00-11:00 6702 E. N. Tacoma, WA 98445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8:00-11:00 1150 E. Sunset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8:00-11:00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2	세계로번거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8:00-11:00 155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8:00-11:00 1063 5th Ave, Honolulu, HI 96815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8:00-11:00 1367 E. Hahaione Rd, Haa,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현구 주일: 8:00-11:00 2122 Malakoi St, Honolulu, HI 96822		

하와이 기독교이민110주년 기념대회

하기총, 2013년 2-4월 한민족복음화대회 개최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하기총, 회장 황성주 목사)가 2013년 하와이 기독교이민 1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황성주 목사는 2013년 기독교 이민 110주년 행사의 공식 명칭으로 "2013 하와이 기독교 이민 110주년 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로 정했음을 발표하면서 오는 110주년 기념 한민족 복음화 대회는 하와이 하기총을 중심으로 하와이한인회와 함께 주관해 한국 하기총 지원 속에 미주본토 50개주의 기독교 단체 및 해외의 단체가 참여하는 범 재외 한인 기독교의 대축제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4일 하기총과의 교류협력(MOU) 조인식을 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하기총과의 교류협력을 계기로, 하기총의 적극적인 협력과 후원을 바탕으로 하는 110주



황성주 목사(왼쪽네번째)가 하기총을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년 기념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를 위해 하기총은 이미 임원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에 대한 대회 조직 인선과 일정등을 구체화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성주 하기총 회장은 기

독교 110주년 역사 중심에 서있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낙인 담임목사와의 회동해 동 교회의 기독교



오래곤 밴쿠버 한인연합회 여성교회 주관 제14회 자선음악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래곤 밴쿠버한인교회 여성교회 주관 자선음악회 제 14회...태국 파송 선교사 후원

오래곤 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 여성교회 주관 제14회 자선 음악회가 지난 7일 오후7시30분 오래곤선교회(담임 목사)에서 성황리에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정정희 권사는 특별히 올해는 9월에 태국으로 파송되는 정미연 선교사(에덴장로교회)를 후원하고자 자선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파송되는 정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간절히 호소했다.

음악회는 강제원 목사(교연 총무)의 기도로 시작했으며 무궁화합창단(지휘 정정희)에 이어 캐디리운

교역사의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협력을 다짐했다.

황 회장은 "2013 하와이 한인 기독교이민 110주년 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2013년 2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되며 기념대회를 통해 하와이 지역교회는 물론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협력 속에 하와이가 하나 되고 나아가 하와이 복음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성주 목사는 지난달 29일 하기총(대표회장 홍재철)을 방문, 2013년 대회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하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을 전했다.

(기사제공: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2012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목회자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회자" 주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최한오 목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012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를 World Mark Indio Resort에서 80여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금번 수련회는 'Happy Ministry/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목회자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와 테마여행, 조별 탁구대회, 족구대회, 척사대회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으며, 특히 선배목회자의 끈끈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첫째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두란노교회 담임 이상문 목사는 "행복한 목회는 목회자 가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개척, 재직 3,000명의 교회로 부흥하기까지의 실질적 강의를 통해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

에게 도전을 주었다. 또한, 둘째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예전교회 담임 정성환 목사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품은 치유자가 되어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통쾌한 이 땅에 치유자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셋째 날 강사 벨엔교회 담임 이상복 목사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목적과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은혜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티면 1년을 버틸 수 있고 1년을 버티면 10년을 버틸 수 있다"고 강증을 나눠 참여한 많은 목회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자세한 문의로는 yangkyu0531@hanmail.net, (213)434-1083(강양규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미국 나이스 컨퍼런스 인디애나 2012 대성회에서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NYSKC2012대성회 미주지역 외 외국에서도 참석 "국제규모 갖춘 예배회복운동" 피종진목사 인도

미국 NYSKC Conference Indiana 2012(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대성회가 미국 인디애나주 버틀러 대학교 대강당에서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은혜 가운데 거행됐다.

미국 뉴욕, 시카고, LA 등 여러 도시에서와 인도 등 외국에서까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치게 된 본 대회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주체 측은 이 대회가 "국제 규모를 갖춘 예배회복운동으로 영성 재충전과 성령 충만을 받는 성회"라고 밝혔다.

이번 성회는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를 비롯해 조은성, 조인호, 윤사무엘, 최임마누

엘, 김은목, 김에스라, 전대빛, 김일림, 이들라스, 류보야스, 주렌디, 로사무엘, 안영K, 초기S, 김시H, 윤대빛, 유제시, 최제니, 김영수, 김태두 등 목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목회자반, 사모반, 제직반, 청소년반 등으로 구분해 성회와 세미나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사탄과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세속화와 반 기독교자들의 계략으로 예배가 무너져가고 신앙이 침체돼가는 이때에 전 세계에 '예배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영력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돼 영혼 구원에 앞장서 매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기사제공: NYSKC)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논문작성 세미나를 마친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 크리스틴은 자매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는데 특히 크리스틴 양은 8세로 Tarantella를 감쪽하게 연주해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소프라노 김사라 양은 G. Donizetti의 P ar Le rang를 불러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오랜만에 김성정 사모(벨엔교회)가 F Chopin 곡인 Scherzo op. 31을 완벽하게 연주하기도 했다. 이어 오래곤장로만 양단(지휘 김영진 장로)가 "죄짐만은 우리 주주"와 "항수"를 연주 후 양성환 목사(교연 회장)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기사 및 사진 제공:홍정기 장로)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논문작성세미나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는 9일 오후1시 본교 LA캠퍼스에서 목회학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작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인 다니엘 뉴먼 교수와 지난 5월 본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선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논문작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인도했다.

이날 다니엘 뉴먼 교수는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

가족, 경제적인 문제, 사역, 시간관리, 정보수집, 지지치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먼 교수는 "논문작성을 위해 하는 공부는 철저히 학생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며 추후 다른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말했다.

최선영 목사는 자신이 논문작성할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행착오 없이 논문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나누었다.

(박준호 기자)



가디스 워십 찬양집회가 글렌데일에 있는 바울 선교 교회에서 열렸다.

"예배 통해 온전한 헌신 드린다" 예배인도자 모임 '가디스 워십' 찬양집회

LA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예배인도자 모임이 가디스 워십(GODIS Worship 대표 신영진 전도사)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찬양집회를 글렌데일에 있는 바울선교회(담임 박근덕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찬양집회는 가디스 워십의 열정적인 찬양인도와 강사로 나선 백기현 교수의 간증이 한데 어우러졌다.

가디스 워십(GODIS Worship)은 Giving Ourselves to Devotion In (HIS) Service의 첫발을 따서 예배를 통해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이름의 준말이다. 현재 가디스 워십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LA 지역에 찬양 예배가 필요한 중소형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 단체는 매 주일 저녁 7시 소망장로교회(담임 선준기 목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집회 문의로는 신영진 전도사/(213)321-7368, 이요한 전도사/(626)756-1800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번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육목사: 캐리 미켈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11:30 시애틀: 오후 8:00(월-화) 오후 8:30(수-목)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4시: 오전 8:45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9:00 시애틀: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45			
뉴욕셋째마태교회 담임목사: 이지홍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시애틀: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	뉴욕독암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 시애틀: 오후 8: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택진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월-목) 금요일: 오후 8:00 시애틀: 오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4시: 오전 10:3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30 수요일: 오후 11:30 목요일: 오후 11:30 금요일: 오후 8:30 시애틀: 오후 8:30(월-목) 오후 8:00(금)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8:30 수요일: 오후 11:30 목요일: 오후 8:30 시애틀: 오후 8:45(월-목)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 시애틀: 오후 8:00(월-목)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일4시: 오전 7:15 2부일4시: 오전 8:30 3부일4시: 오전 10:15 4부일4시: 오전 12:00 5부일4시: 오후 1:30 6부일4시: 오후 3:00 7부일4시: 오후 4:30 8부일4시: 오후 6:00 시애틀: 오후 8:00(월-목)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1: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월-목) 시애틀: 오후 8:30(월-목)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14시: 오전 10:3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풍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혁형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24시: 오전 8:45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메디나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30 수요일: 오후 11:30 목요일: 오후 11:30 금요일: 오후 8:30 시애틀: 오후 8:30(월-목) 오후 8:00(금)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철 1부일4시: 오전 8:00 2부일4시: 오전 9:30 3부일4시: 오전 10:45 4부일4시: 오전 12:00 5부일4시: 오후 2:30 6부일4시: 오후 4:00 7부일4시: 오후 5: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곤 주일14시: 오후 12:30 주일24시: 오후 6: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1:30	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아미림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8: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10)995-0000 E-mail: hcs@hcsnews.com N.Y.: Tel. (718)996-4000 Fax: (718)996-0074
세계로번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45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홍문환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병연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기상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7: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현곤 목사 목회자: 임현곤 목사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30

동부교계 게시판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윤걸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M.Div)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이중언어 설교자. 이력서 목사안수 증명서, 학력증명서, 설교CD 2개, 목사추천서(2인)가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7월 31일. 이메일 yspcpastor@gmail.com
▲문의: (215)542-0288/김대호 목사

기독교 다큐영화 “잊혀진 가방” 상영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을 그린 기독교 다큐영화 “잊혀진 가방”(김상철 감독)이 KPM 소속 6개 교회에서 상영된다. 이 영화는 1950년대 아프리카를 향해 떠난 선교사들의 흔적과 삶 그리고 떠난 이유를 ‘가방’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권오중, 이현우 두 배우가 추적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상영은 지난 8일 뉴저지초대교회를 시작으로 13일 퀸즈한인교회 △15일(주) 오후 1시 레노바레교회 △18일(수) 오후 8시 팰리세이드교회 △20일(금) 오후 8시 아름다운교회 △22일(주) 오후 3시 뉴프론티어교회로 이어진다. 영화는 무료 상영된다.
▲문의: (516)398-8289

부목사 청빙

뉴저지 팰리세이드교회(담임 임정섭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경력(교육, 교수)이 있으며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사진첨부), 추천서 2부(담임목사, 친구 혹은 교수) 설교CD/DVD,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21일.
▲이메일: appy@palisadeschurch.org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대표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희생함으로 열매 맺는 단체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김승희 뉴욕대표회장 취임식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 뉴욕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및 취임식이 지난 1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려 김승희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연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승희 목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희생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말고나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흥사연수원장으로 취임한 김원기 목사는 “이번 할렐루아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총재 이태희 목사가 김승희 대표회장, 양승호 상임부회장, 김연규 사무총장, 김원기 부흥사연수원장에게 각각 위촉패를 증정했다. 취임식은 박희소 목사의 축사가 있을 후 이병홍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뉴욕대표본부는 임원진 외에 지도위원, 협동총무, 분과위원 등의 체제를 갖췄다.
(유원정 기자)

도 김연규 목사, 기도 최예식 목사, 말씀선포 이태희 목사, 광고 이성현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희 목사는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은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그것은 ‘성령 받음’이다. 요즘 교회에 성령과 상관없는 목사, 제자들이 많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취임하는 목사님들로 인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1978년 18개 교단이 합심해서 초대 총재를 신현균 목사가 맡아 창립된 이래 1,720명의 부흥사들을 배출했으며 2006년 2대 총재로 이태희 목사가 취임 후 현재 3천여명의 목회자들이 가입돼 있다. 산하에는 부흥사연수원(원장 강문호 목사)이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독립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2012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성령 받으면 변해서 새사람 된다”

뉴욕교협 2012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성료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열린 2012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에서 강사 이태희 목사는 “성령 받으면 변하여 새사람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결국 대회를 마친 후 9일 목회자세미나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에 급송되는 사태가 발생, 강의를 인도하지 못했다. 또 둘째 날과 셋째 날 설교는 준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한다고 밝혀 순서지와 다른 제목의 설교를 했다. 첫날 집회는 이규섭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뉴욕수정성결교회)이 이어 양승호 목사의 대회사, 특별찬양(명성솔로이스트), 대표기도 허준준 목사,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 강사 소개 박희소 목사, 찬양 퀸즈한인교회 찬양대, 설교, 헌금기도 조승수 목사, 헌금송(신남성 집사), 광고 현영갑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는 대회사에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꿈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시키게 된다”며, “세계의 중심 뉴욕을 변화시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꿈꾸자”고 전했다. 이태희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행3: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적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일어난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

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치유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나타난다. 성경을 100%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 보수 신앙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는다.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이뤄질 줄 믿는다. 확실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며 체험적 신앙을 강조했다. 즉 성령 받아야 믿어져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며 “성령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비숫하나 구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 목사는 부모의 기도로 주먹세계에 몸담았던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을 전하기도 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라. 병의 원인의 70%는 죄값(귀신의 역사), 20%는 인간의 실수, 1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치유 간증을 소개하기도 했다. 둘째 날은 최예식 목사 인도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 후 뉴욕행복한교회 경배와 찬양을 했으며 특별찬양(원태헌 솔로이스트), 대표기도 양민석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찬양 뉴욕예일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잠 예배” 요4:23-24, 헌금기도 이재택 목사, 헌금송 뉴욕관사선교 합창단, 광고 김연규 목사, 축도 김

승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 집회는 이광희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뉴욕수정성결교회) 팀의 찬양, 통성기도, 특별찬양(피아노 삼중주), 대표기도 이성현 목사, 축사 한창연 뉴욕한인회장, 성경봉독 손석안 장로, 찬양 프라미스교회 찬양대, 설교 “사명”, 은1:1-12), 헌금기도 장경태 목사, 헌금송 뉴욕장로성가단, 선언문 낭독 김종훈 목사, 광고 이희선 목사, 특별찬양 어린이대회 참가자들,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희 목사는 둘째 날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으며 셋째 날은 죽음을 각오한 사명에 대해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강사 이태희 목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강사 이태희 목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중훈 부회장, 양승호 회장, 이태희 강사, 이광희 준비위원장, 이병홍 목사.

“첫사랑 회복, 초대교회 신앙 강조하겠다”

뉴욕할렐루아복음화대회 강사 이태희목사 기자회견

뉴욕할렐루아복음화대회 강사 이태희 목사의 뉴욕도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난 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태희 목사(성복교회 담임)는 “이번 할렐루아대회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는 집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먼저 믿은 우리가 믿는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이번 주제인 ‘변하여 새사람 되리라’는 첫 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택하게 됐다”고 말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뉴욕의 복음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이 대회를 위해 성복교회 목양선교회가 매일 밤 철야

기도와 오후 8시 전교인 기도회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대회를 마친 후 9일에 열리는 목회자세미나는 “40년 목회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내용으로 나눠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뉴욕교협 이희선 총무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환영인사를 전한 양승호 회장은 “3일 저녁에 도착하신 이태희 목사님께서 건강이 좋으시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준비위원장은 “후원금이 작년수준을 넘어섰다. 이번 대회가 목회자들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노숙자돕기 걷기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

평화나눔공동체 주최 한인 2세대 노숙자체험 참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조지아,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여러 지역에서 모인 30여 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가 워싱턴DC에서 주관한 여름단기선교를 통해 ‘노숙자 돕기 걷기대회’와 ‘노숙자체험’에 참여했다. 체감온도 100도가 넘는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은 한인 2세대들은 워싱턴 DC 공원들을 방문해 목마름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음식을 나눠주었다. 참가학생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노숙자들의 삶을 재현하며 더 친근감 있는 이웃사랑을 배우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1

시간 동안 워싱턴 빈민가를 걷기도 했다. 아울러 노숙자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름에 신음하는지도 직접 느끼기 위해 24시간 금식을 하며 공원에서 노숙자들과 생활하는 감동적인 시간도 가졌다. 특히 조지아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소속 청소년 자원봉사팀들과 뉴저지 클로스터게헨장로교회 소속 청소년들은 평화나눔공동체에서 노숙자선교훈련을 받은 후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흑인영가들을 중심으로 워십 댄스까지 마련해 거리전도와 거리급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자제공: 평화나눔공동체)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3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다 음

(1) 미국(전 미주)를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논으로 볼 수 있도록 정렬하여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회(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권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트를 난이게 기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트링 한다.
(5) 리스트링 및 광고 접수: 저금 연락주세요

물품(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광고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2,800.00
*전면광고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으심		
전면표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7.7cm × 5.8cm	
물품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카드(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1)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2) 교회(기관)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5) 사택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정확히)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5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85-0009, Fax.(323)685-0048
Email : la@chpress.net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에 이우형 목사

김영모 목사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만장일치 당선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위

한 임시총회를 9일 오전 11시 풍성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갖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이우형 목사(미주제일교회 담임)를 수석부회장에 선출했다.

김영대 회장의 사퇴로 시작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지난 공천위원회에서 단독후보로 임후보한 이우형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우형 목사는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남가주목사회의 수석부회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여러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이다. 목사회는 이러한 은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만큼 그리스도 안

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며 수석부회장 직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는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수고했던 김영모 목사의 임지가 한국으로 정해져 귀국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목사회 일을 맡을 수 없어 사임하게 됐으며 목사회에서는 공식인 수석부회장을 공천위원회를 열어 이우형 목사를 후보로 결정했으며 이날 임시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 이전에 열린 예배는 이준준 부회장의 사퇴로 시작, 전석호 부회장이 기도, 김사무엘 증경회장이 마10:45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류달영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기 수료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기 수료식 성료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예심대학(학장 김기남 목사)이 미주에 진출해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장소: 남가주내리교회)을 개교하고 첫 수료생들을 배출했다.

금번에 수료 증서를 받은 사람

은 총 25명으로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출발을 증명했다. 수료증을 받은 졸업생들은 "이 전도 훈련을 통하여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첫 주에 3일간의 집중세미나를 비롯하여 10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주에는 특강과 함께 수료식을 거행함으로 12주의 전 과정을 마치게 됐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오는 17일(화)부터 19일(수)까지 사흘 동안 제3차 예심전도 집중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7월 26일(목)부터는 제2기 전도대학이 1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714)401-987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예심전도대학)

'Grow' ...뉴라이프 바이블 캠프

7월 16-19일 어린이전도협 주최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에서 주관하는 2012년 New Life Bible Camp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랜초이바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실시된다.

금년 캠프는 'Grow'라는 주제로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복음 제시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원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심어주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육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새 생활 캠프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QT훈련, 산

책, 예배와 성경공부 창작활동,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 성경암송, 수영, 저녁에는 천로역정 등 특별 활동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 있는 어린이 영적 부흥회로 이어지게 된다.

모집 대상은 3학년부부터 7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전도협회는 이번 캠프에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불황타개위한 Job 세미나



Job세미나에서 Background Actor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문광식 집사.

됐다. 이날 소개된 직업은 'Background Actor'. 우리에게 익숙한 엑스트라 배우다.

문광식 집사는 "엑스트라는 영화나 TV 상업 광고 등에 대사가 없이 출연하는 사람이며 인종이나 나이, 성별,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하며 "기본급 외에 오버타임, 식사 및 간식 특수 수당 등이 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버뱅크에 위치한 중앙(Central Casting) 오피스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며 일단 등록해 놓으면 모든 필요한 배역이 등록자들에게 오픈돼 언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세미나를 연다"고 말했다.

문 집사는 본업이 있으면서도 수

년전 우연한 기회에 이 잡을 알게 돼 일해오던 중, 한인들 가운데도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지 못해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금번 이 세미나를 구상하게 됐고 본인의 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문광식 집사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213)500-2586로 Text나 Voice 메시지를 남겨 주면 되고 교회나 단체에서 세미나를 원하면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최 한여름 성령축제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는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 초청 한여름 성령축제를 개최한다. 일정은 △16일(월)과 17일(화)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 △18일과 19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20일부터 22일(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이다.
▲문의: (714)719-5312 서준석 총무

한길교회 말씀축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가 '섬김의 리더십'(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이란 주제아래 7월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한규삼 목사(뉴저지초대교회 담임)를 초청, 말씀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323)735-0200

LA비전교회 입당 감사예배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가 520 S. Lafayette Park Pl(구 LA사랑의교회 장소)로 이전하고 입당감사예배를 15일(주) 오후 4시에 드린다. 또한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쓰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문의: (213)386-9191

어린이 무료 과외교실
리버사이드침례교회(담임 최성광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과외를 매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학교 숙제는 물론, 모든 공부를 돕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한방무료진료도 실시한다.
▲문의: (951)687-4070



살롬선교회가 주최한 제9회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컨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에서 박모세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 독창회 성황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제9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박모세 목사 독창회를 8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선미 방송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독창회는 박모세 목사가 '염려하지 말라', '왜 날 사랑하나?', '우편마차', '주와 함께 나 걸으리', '사랑은 언제나' 등을 불렀다. 이날 송명간테모소 여성중창단, 남가주 속이교회 수화찬양팀 등이 찬조 출연했으며 이들이 연합으로 합창을 부름으로 막을 내렸다.

박모세 목사는 "23년 전 한국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그 사고를 통해 4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 이번 '휠체어 사랑이야기'에 부족한 제가 출연함으로 대학졸업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독창회를 갖게 됐다. 이번 독창회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 나누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찬미의 제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도 영웅 행동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문안식,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스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01 Email, leg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기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볼펜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국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열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문제점은?

[미션라이프]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산·울산 성시화 발언과 개인 간증집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반기독교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교묘한 정치적·종교적 편향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려는 초법적 논리는 '서울시 불헌발언'과 '포항시 재정 1% 성시화 사용' 해프닝 등에서 볼 수 있듯 지난 7년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꾸준히 유보시켰던 반 기독교 이데올로기다. 신앙 간증집 문구부터 예배 후 나는 덕담까지 사실이 뒤져 공직자의 신앙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낮은 종교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보장된 공직자 종교자유 오히려 억압=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집회에서 개인의 신앙고백을 제한하는 경우 공직자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물론 공직자제 종교적 중립의 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장소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업무의 시간에 참가한 종교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사적 종교 활동은 공직자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으며, 일반 국민과 같이 똑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시화와 관련된 김 후보자의 발언은 판례상 종교 편향

고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란 문구만 빼내 공격한 것도 김 후보자에게 상처를 주기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

◇종교편향·재판중립 훼손 우려는 위헌한 논리=김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억측이다. 야당 등이 김 후보

헌법학자 “조정·화해는 법관의 역할” 공직자의 사적 표현도 종교편향인가?

의 기준으로 삼는 재정지원이나 행정편의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울산성시화운동과 울산기독교관광회 출범' 발언은 지난 4월 국회의원당선자 조찬 감사예배에서 나왔다. 울산성시화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근두(울산교회) 목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자 조찬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김 후보자가 공식 순서도 아닌 개인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전한 덕담"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개인 신앙 간증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국민일보의 신앙 인터뷰에서 전제적인 맥락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지진은 하나님의 경

자를 공격하는 사례로 든 재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 기독교인으로 판결보다는 합의·조정을 권유하는 것이거나 바뀐 교회 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재판 중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다.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측의 지적처럼 '법관의 양심'에 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헌법 위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과정에서는 결정을 조정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기독교인 간 다툼이었던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을 시도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있는 법정에서는 곤란하니 조정실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아무 재판이나 앞두고 '기도

한장총 새 상임회장에 권태진 목사 선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5일 서울 연지동 한

게 된다.

이날 임 목사는 건강과 교회이전 등의 이유로 상임회장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예상 합선 총회장인 권 목사가 단독 추천받아 상임회장에 선출됐다. 권 목사는 현재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과 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군포·의왕성시화운동본부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임석영 목사 대신 권태진(군포제일교회 담임·사진)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권 목사는 내년 총회부터 대표회장직을 수행하

한장총은 상임회장 취임식 및 '장로교의 날'을 오는 1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9월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동성애자, 창조질서원리 따라 회복도아야”

예장합동, 개혁주의 신학대회 개최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5일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개혁주의 신학대회'를 개최하고 바른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거룩성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회에선 예상 합동이 지향하는 보수·개혁주의 입장에서 목회자 윤리와 동성애·종독·자살 문제 등을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는 세속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청산하며 살아야 한다"면서 "목회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혁·갱신할 때 주님은 개인 교회 민족에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총신대교수도 16가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목회 소명과 영적·도덕적 자질, 전문성 등이 목회자에게 절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총신대 교수는 예상 합동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삼위일체론적인 칼뱅신학, 성경적 복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은 개혁신학에 대한 식견이 깊었으며 신앙 또한 경건했다"면서 "100년 전 설립된 예상 합동은 철저히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 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에서 신국원 총신대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가장 좋은 목회적 돌봄은 창조질서 원리에 따라 그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동성애 권리와 차별 제거를 명분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운동에 대해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 원리는 성경의 영감(靈感),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 구속사적 연약신학, 종보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사역,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등에 있으며 핵심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 문제와 관련해 신원해 고신대 교수는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자살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며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교회는 자살예방 사역과 유가족 돌봄 사역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목사는 '21세기 목회자 윤리강령'에서 "목회자

“육체의 한계 넘어 담대히 싸우라”

런던올림픽 기독교선수단 파송예배

'제30회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크리스천 국가대표 선수들이 4일 오후 8시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런던올림픽 파송 및 필승기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만나교회(김병삼 목사)와 국가대표기독교신우회(김기현 목사)가 함께 주관한 이번 예배에는 장미란 선수(역도), 현정화 감독(탁구) 등 현역 선수 및 감독과 교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야 한다"며 "시종일관 성령이 100% 장악해 제한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예배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순서를 맡았다. 장미란 선수는 마태복음 13장 31~33절을 봉독했고, 정병철 코치(육상)는 "역경을 이겨내고 태생 선수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올림픽을 통해 선수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대표 기도했다. 참석한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은 주어진 능력과 같고 닦은 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정현 목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선수가 돼

후보자 금품수수 땀 어떤 처벌?

기윤실, 교계불법선거방지 '모범답안' 마련

교계의 불법·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교단 선거법의 '모범안'이 마련된다.

개신교계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5일 "현재 교계에 만연한 불법·금권선거를 규정하는 법 조항과 처벌에 관련한 세부 규정은

구분	불법선거금지 관련 조항										처벌관련 조항		
	금품수수 행위	기부 행위	상대 배분	유인물 배포	각종 광고	집단지	추천회	회유 압력	강사 초청	강사 출간	당선 후보 무효	후보 취소	처벌 유무
고신	○	○	○	○	○	○	○	○	○	○	○	○	○
통합	○	○	○	○	○	○	○	○	○	○	○	○	○
합동	○	○	○	○	○	○	○	○	○	○	○	○	○

(자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문한 수준"이라며 "교단 인사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모범안'으로 삼은 만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는 한편 다음달 말까지 세미나와 캠페인을 열어 목회자 및 일반 성도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 초쯤 확정된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윤실이 비교·분석한 주요 교단별 선거규칙(표 참조)에 따르면 교단별로 선거 후보자의 금품수수나 접대·기부행위 등을 금지하는 불법 선거 금지 조항은 대체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들 행위에 따른 처벌조항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선거사범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이 명시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1994년 제정) '정치자금법'(2004년 개정) 등

의 사회선거법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교단 선거법의 경우 제대로 명시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교단 내 정치구미나 재판국의 재량에 따라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제호 기윤실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아예 없던 일이 되어 버리는 게 교단 선거법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모범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주요 교단의 총대와 기독교번 호사회 소속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교단선거법개정 위 부위원장인 조성돈 실천신학대교수는 "이번 활동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단선거법을 손질해 모범이 되는 기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라며 "특히 처벌 규정을 수치화·계량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WCC 부산 총회 개최 여부, 대화로 풀자”

예장합동, WCC 총회 한국준비위에 공개토론 제안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교단은 또 "토론 의제를 잡기 위해 각 실무자 2명을 추천해 협의하며 토론회 경비는 공동 부담으로, 장소는 제3의 공간을 선택하자"고 밝혔다.

예장 합동은 9일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CC 한국준비위원회와 WCC를 반대하는 예상 합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WCC의 신학사상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8월 20~30일경으로 우리 쪽에서는 서기행 WCC대책위원장과 홍정기 목사, 신학교 교수 3명이 토론자로 나설 테니 WCC 한국준비위원회도 준비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신학교 교수 3명이 나와 달라"고 주장했다.

예장 합동의 토론 제안에는 "WCC 총회 무조건 반대"라는 그간의 논리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옳고 그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해 WCC 한국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총회장 정준모(대구 성명교회) 목사, 홍정기 목사, 문병호 총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광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찬양의 초대, 찬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대예배 설교를 위한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영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전,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대꾸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회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회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현지 선교사에게 듣는 '단기선교' 의 효과

박순옥 선교사(코스타리카 인디언선교)

해마다 여름방학에는 미주 지역 여러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선교팀이 방문해 조용하던 선교지에 선교의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선교사나 현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의 사역들을 며칠 사이에 똑딱 시원스럽게 해 치웁니다.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아 쑥스러워하는 현지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노방전도에 나서 온 동네에 주 예수를 전합니다.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오면 평소 인원보다 5-6배의 어린이들이 좁은 예배당에 뻘뻘하게 몰려듭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실내에서 땀으로 옷을 흠뻑 적셔가며 온 힘을 다하여 어린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편으로 동행하신 장년 팀이 각 그룹을 지어 땀별 아래서 아이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안경 사역, 치과 사역, 의료 사역으로 동역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마치면 현지 청년들과 축구를 하여 청년들 전도에도 한 몫 합니다. 사역 마지막 날 저녁엔 목사님과 선교팀이 협력하여 집회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심령부흥집회를 인도하여 초청된 불신자를 예수 영접하게 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짧은 사역 기간이 끝나고 현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언제 또 올거냐?'고 어김없이 묻습니다. '내년에' 하면 '우~ 너무 길다. 한 주 후에 다시 올 수 없어?'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선교팀이 떠나고 몇 주 지나서 만난 현지 교회 목사님께 선교사역의 결과와 영

향을 물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장년들이 뜨거워졌고, 찬양 사역자를 포함한 일부 교인이 떠나 버려서 축 쳐져 있었던 목사 자신의 영적 충만, 그리고 새신자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돕는 교회들은 신학생들이 담임하는 개척한 지 5년, 10년 사이의 작고 가난한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동안 선교팀이라곤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었기에 선교팀의 활동이 신선한 충격이며, 동네에도 좋은 소문이 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자주자주 방문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역에 참석한 선교팀들도 말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선교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들이 신앙생활에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고, 해마다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염려했던 불편한 환경, 무더운 날씨, 독한 모기들의 공격은 오히려 이들에게 아무런 거침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나가서 거리 청소년을 하면서 바라본 갈비뼈가 앙상한 개들, 남무한 행색의 아이들,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오물이 질펀한 가난한 동네의 현실은 선교팀에게 훌륭한 현장체험의 산교육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 생활의 풍족함과 좋은 부모를 만난 그들의 삶에 감사를 하게 했습니다.



(7면에서 계속)
 (5)계승과 재생산을 위한 시스템화
 ■일본선교신학교(JMST)설립 - 일본내 교수지원
 합동신학대학대학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지원 협력, 3년 M.Div과정, 목사고시 및 안수는 JEA소속 7개 교단장에게 의뢰
 ■권역제도 도입
 ■지역교회 순회방문 및 교역자모

임
 (6)차세대 인재개발
 ■민족학교-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국제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2001년에 시작하였다.
 ■요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YICS)-5학년부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2006년 27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69명이 재학하고 있다. 2회 졸업생 10명은 미국과 일본내 대학에 진학

하였다. 11학년(고2)까지 일본내 대학입시자격고시 패스를 원칙으로 한. 5개 국어 구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학 중 약기를 1개 이상 다룰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한 감성과 인성, 영성, 지성을 겸비한 월드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5. 교회개혁현황
 2012년 현재 40개 교회가 개혁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동경에서는 요한동경교회(한국부) 2000명, 요한와세다교회(일본부) 1000명, 요한차이니스교회(중국부) 300명, 영여권(영여부) 27개국6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1995년 요한와세다기독교교회, 요한서울기독교교회 △1996년 요한오사카기독교교회 △2000년 요한후쿠오카기독교교회, 요한센다이기독교교회 △2001년 요한요코하마기독교교회, 요한나고야기독교교회 △2002년 요한히로시마기독교교회, 요한우츠노미야기

독교교회 △2003년 요한교토기독교교회, 요한사이타마기독교교회 △2004년 요한치바기독교교회, 요한오카야마기독교교회, 요한시즈오카기독교교회 △2005년 요한하치오지기독교교회, 요한코리야마기독교교회 △2006년 요한코베기독교교회, 요한타카슈기독교교회, 요한하마마츠기독교교회, 요한키치조기독교교회 △2007년 요한나라기독교교회, 요한코후기독교교회, 요한차이니스기독교교회 △2008년 요한니시노미야기독교교회, 요한야마가타기독교교회, 요

한가나자와기독교교회, 요한텐마바시기독교교회 △2009년 요한츠쿠바기독교교회, 요한후지사와기독교교회, 요한오이타기독교교회, 요한카나가와기독교교회, 요한니이가타기독교교회 △2010년 요한에히메기독교교회, 요한기후기독교교회, 요한사가미하라기독교교회 △2011년 요한모리오카기독교교회, 요한나가사키기독교교회, 요한이시노마키기독교교회, 요한요코하마차이니스기독교교회.
 (끝)

선교지 편지

볼리비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3:7). 변함없이 저희들과 볼리비아선교를 위해 사랑과 뜨거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반 학생들과 예배
 쿠바 고등학교와 포르투갈 고등학생들의 예배 참석률이 70%정도 됩니다. 토요일, 주일은 일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요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수요예배를 성경공부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월요일은 쿠바 고등학교 학생들과 금요일은 포르투갈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합니다. 5월 16일은 두 학교 학생들의 운동시합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
 5월 12일 오스카 변호사를 초청하여 성에 관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남미가 다 비슷하지만 저소득 국가인 볼리비아는 성에 대해 노출되어있어 보호 차원과 사고 후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와 질문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뻘뻘가 송배했던 토속종교신 우루쿠베냐
 5월 13일 주일은 무척 비쁜 날이었습니다. 마르스칼 산타크루즈의 땅을 기증받기 위해 사용 계획서를 마을에 전달하였고, 한국 기술학교에서 발족된 야학 빌야 에스페란사 고등학교의 기념일 행사에 초대받아 잠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후 학생예배 후 볼리비아 국경에 있는 판치파 자매가 방문하여 호세 집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62살 동안 가톨릭문화 속에서 살아와, 볼리비아 지역 토속종교인 우루쿠베냐 처녀신과 마리아와 혼란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 때문에 우상

이 무엇이며,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난 후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코차밤바에 처음 데려간 사람은 조사라고 하여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사기꾼에게 가진 모든 돈을 털려 돌아가는 버스비 20불을 도와주었는데 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함께한 21살의 젊은이 카를로스 엔지께 형제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잘 이해하며 처녀신 우상이 토속종교와의 혼합함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날 행사
 5월 27일은 볼리비아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함께 한 어머니들을 5그룹으로 형성하여 함께 열 처녀, 열아버린 한 마리의 양, 돌아온 탕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 등 성경들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포르투갈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확정식
 6월 8일은 포르투갈 학교의 졸업생 명단 확정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볼리비아는 한국과 다르게 2번의 행사가 거대하게 이루어집니다. 6월에 졸업생 명단 확정식과 11월 졸업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졸업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진행하며 다른 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함께 축하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요한3서 2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이 삶을 지배한다며 말씀을 전하였고, 교장선생님은 필요한 말씀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병원에서 안과 의료사역
 한국 미주 비전케어 법인과 함께 6월16일부터 22일까지 안과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16일 밤늦게 참석한 팀들이 많이 일부는 한인교회로 저희 교회는 6명이 참석하고 설교 후, 소개 시간에 한자매가 고산으로 기절하여 쓰러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턱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영, 유아반 수료식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김성제 선교사가 수료식을 감당하고, 이진화 선교사

는 단기선교 팀들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턱뼈가 끊이 가고 이가 뿌러졌지만 의사의 이야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사역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치료도 잘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교인들은 이 무언의 복음을 통해 고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힘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는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쿠바 고등학교 졸업생 확정식
 6월 22일은 쿠바 고등학교의 졸업생 명단 확정식이 있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삶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볼리비아 경찰들의 행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볼리비아 경찰들이 월급인상을 위하여 데모를 하여 경찰 없는 조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8년 전 경찰과 군인들이 충돌할 때는 시민이 경찰의 편을 들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아 정말 조용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두려운 시간들이었으나 봅니다.

청소년들 수련회
 6월 28일에서 30일은 벨엘교회 지역 청소년들(12-17세)이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볼리비아 수련회는 주로 노는 것으로 친목회 수준인데 한국의 수련회 차원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연극을 좋아하는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예배소서와 일곱 교회를 연극을 통해 말씀을 인식하게 하였고, 7월 1일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 기도제목**
1. 쿠바고등학교, 포르투갈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교회와 잘 접촉될 수 있도록
 2. 안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3. 방학 동안에 있을 특별활동에 학생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도록
 4. 교회사역(벨엘교회, 운니, 비아차)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지도록
 5. 볼리비아 사회가 안정되도록

볼리비아 고산 라파즈에서 이진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관련된 연관하여 새롭게 종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가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저렴한 여드러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와 스크린 판매 및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역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가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가독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E7 미가엘 반주기

최고의 음향, 최고의 화질, 최고의 가격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헤라성구사

에어드수정장대상

LED LAMP를 설치한 LED는 강아지 불안전의 특별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ANSI LUMENS

LED LAMP를 설치한 LED는 강아지 불안전의 특별한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의 LED 조명

다양한 디자인의 LED 조명

다양한 디자인의 LED 조명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88, 888, 888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9)

남편에 대한 봉사로 시작된 특수교육

미국학교의 1년 수업일은 180일인데 그중 열흘은 병가로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상 긴급상황이 생길 때 휴가로 쓸 수 있다. 만일 12일의 휴가를 다 쓰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은퇴할 때 그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늘 긴급상황이 생기거나 남편의 일 때문에 늘 12일의 휴가를 꼬박 채워 다 썼다. 그때부터 나는 운동을 하고 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됐는지 지금도 굵직한 신발을 신으면 불편하다. 게다가 늘 한 보 앞에서 남편을 안내해야 하니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나의 모든 신발에는 굵이 없다.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맡은 일은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 세 살부터 스물한 살까지의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별 지도를 하는 순회교사직이었다. 아예 시각을 잃어 교실에서 학습수행이 힘든 3세 아이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시각 외의 다른 감각기관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을 해왔다. 특히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의 아이 중 형편이 어려워 부모가 유아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립학교특별법을 제정해 무상교육을 해주었다.

이 시기에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 모든 사물에 대해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각이 없으니 청각, 촉각, 후각, 방향감각 등을 개발해주는 교육과정을 짜야 했다. 하지만 내가 맡은 학생들은 시각이 없거나 약시라는 것 외에 전혀 공통점이 없었다. 다시 말해 완전히 개개인의 특수성과 능력에 맞게 개인 지도를 해야 했다. 정말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정성껏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가르친 한 학생의 어머니는 매년 작은 인형이나 "1 Teacher"라고 쓴 컵을 주어 지금까지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지도학생 중에는 중보장애아동도 있었고 정신지체아동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교내에서 식당, 화장실, 체육관에 가는 법과 학교 바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법 등을 가르쳤다. 특히 체육관에서는 소리나는 공을 사용해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공 잡아오기, 공 던지고 차기, 기어오르기, 줄 넘기, 잡아당기기 등을 지도했다.

점자를 배우기 위해 촉각을 발달시켜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칠고 뾰족한 재료부터 부드러운 촉감의 재료까지 다양한 재료로 사물을 만들어 그것의 이름과 느낌, 형태를 가르쳤고, 크고 작은 물건, 무겁고 가벼운 물건, 뜨겁고 찬 물건 등을 일일이 직접 만져보게 했다. 청각 개발을 위해서는 동물소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 다른 악기소리, 교통수단에서 나는 소리 등을 듣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도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익히도록 했다. 직접 책을 읽어주거나 도



석은옥
(교 강령우 박사 부인)

서관에서 오디오북을 빌려와 들려주면서 청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내 임무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각장애학생에게 지팡이 사용법을 개인 지도하는 것이었다. 교내나 운동장, 교외에서 길을 건너는 법, 겨울철에 인도와 차도의 눈길을 구분해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오는 법,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법, 식당사용법, 간이 식품점과 도서관 찾아가는 법 등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대학 진학이 예정된 학생에게는 해당 학교를 미리 함께 가서 구석구석 안내해주고 학교에 설치된 시설의 이용법을 일일이 지도해주었다.

시각장애인에게 방향감각은 아주 중요하다. 가정이나 학교, 어느 공공기관이든 그들이 독립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일반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때문에 나는 음식을 담은 접시 여러 개를 식탁 위에 놓고 그것을 활용해 12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등을 구분해 가르쳤다. "물은 1시 방향에 있다"라는 식으로 음식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사실 이런 모든 교육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8년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에서 보행 지도교사 자격증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도운 사람이 바로 남편, 당시에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맹인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가 쓸 흰 지팡이를 선물로 사와서 연세대의 백요로, 교내 등에서 사용법을 지도해주었다. 결혼한 후에는 이사를 할 때마다 그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방바닥에는 특수 카펫을 깔아 그것을 따라가면서 식당과 부엌을 찾기 쉽게 했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 넣어두는 곳을 알려주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자레인지 속에는 국과 밥, 반찬 등을 넣어 부엌이 혼자 있을 때 버릇 하나만 눌러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 결과, 이제 남편은 어느 맹인보다도 독립적으로 화장실이나 욕실, 거실, 서재 등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화 받기, 우체통에서 편지 가져오기, 혼자 아래층에 내려가 운동기계를 사용하기, 아파트 앞에서 바깥 인도로 걸어오간다는 한 시간 동안 걷다 혼자 밥을 찾아 들어오기는 물론 혼자 국내외 비행기 여행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사랑으로 장애아동을 능력에 맞게 지도하는 교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것은 내 교육법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동정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닌 존귀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사랑을 베푸는 천성 때문이라고 믿는다. 피교육자가 사랑을 느낄 때 교육의 성과는 더욱 커진다.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단신

시리아사태 장기화 교회 더 어려워져

시리아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망자의 수가 2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활동과 현지 교회에 대한 지원과 연대도 쉽지 않은 형편이며 실제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내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족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최근 매일선교소식이 전했다.

이런 경우 사고사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 시리아를 지원해 왔던 선교기관들은 끊어진 연락망을 복원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선교사의 소리 등 몇몇 기관들은 사랑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더라도 부상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이제는 내전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시리아 사태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그들이 전란을 피해 집을 버리고 난민처럼 유랑하게 되면 그들의 집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나 반군세력의 차지가 되고 가재도구나 모든 물건들은 약탈당하고 말기 때문에 이들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아에서 반군세력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환영 받는 것도 아니다. 최근 정부에 의해 몇몇 교회가 폐쇄 당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독교인들이 어느 쪽으로부터도 도움과 환영을 받지 못한 채 고립무원의 위기에 빠지고 있으며 야사드 정권이 퇴진할 경우 현지 교회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말리 이슬람반군 세계문화유산 파괴

말리의 북부 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주의 독립운동세력인 안사르딘이 이슬람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우상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내의 문화유적지를 마구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파괴되는 유적지가 다른 종교가 아닌 고대 이슬람 사원과 성자 묘역이어서 이들의

동성애 혐역 올해도 계속... 전통적 결혼정의는 지켜

(1면에서 계속)

또한 동 교단 보수진영에서는 성직자의 결혼과 정절에 대한 1996년 기준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역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혼약에 충실하거나 독신으로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만이 동성애 혐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단의 지구책이라는 것이다.

동 교단은 지난 30년간 동성애 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다른 주류교단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는데, 동성애 문제가 본격화된 작년에는 2.61%나 감소해 교세가 277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떤 형식이나 절충을 통한 교회공동체의 동성애 안수 허락 문제는 한 종교가 간직해야 할 교리와 윤리, 그리고 신비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점이다. 성경 원리와 말씀을 문화적 흐름이라는 대세에 절충이나 포기해버리면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마저 전복된다.

동성결혼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고 암묵적인 동의로, 물론 교단 안에서 지독한 혐역과 몸살을 겪고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결혼을 재 정의하는 무순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결혼이 현재 사법부나 정치권의 해석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누가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적이지 아니며, 보수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감동을 줄 수 없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굳건하게 성경 말씀에서 결혼을 지켜나가야만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백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직제예배: 오후 7:3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김천신일교회: 오후 8:00	동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8:00(매월)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장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시애틀: 오전 12:30 시애틀: 오전 2:00(월-토)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목회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전 10:30(오월7-30) 목회예배: 오전 10:30(5월-6월)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0:00 목회예배: 오후 8:3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30 주일7부예배: 오후 7:30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9:00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9:00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가정사역 칼럼



행복한 결혼방식(2) -잘못된 눈(이마고 이론·상)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선택이론 가운데 이마고(imago)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간단히 적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린 시절 자신의 양육자가 가졌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이론입니다(예를 들면 아버지 같은 신앙감을 찾는다든지 어머니 같은 신부감을 구하는 일). 그런데 문제는 양육자의 긍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양육자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을 양육자와 닮은 배우자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자가 아닐뿐더러 불완전하며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경우 그 결혼생활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허덕이며, 갈등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자 선택이론 중 이마고 이론의 내용입니다. 가끔 한눈에 보아 결혼한 부부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심한 갈등을 겪는 예를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면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눈과 기준을 가졌고 또 잘못된 쪽으로 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또는 내가 가진 일정한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를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주시고, 내가 고집하던 것, 소유한 결혼에 대한 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배우자 선택은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해 기도하고 갈등합니다. 또 막상 배우자가 결정되어도 20년 이상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온 두 사람이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위렌 팀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의 성공여부는 혼전에 이미 80%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행복을 만듭니다.

1. 배우자 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라.
2. 당신이 찾는 "완벽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생각하라.

3. 여러 면에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라.
4. 결혼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라.
5.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찾으라. 그리고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라.
6.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열정적인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바꾸라.
7. 친밀의 기술을 익히라.
8. 갈등해소법을 배우라.
9. 일생을 동고동락하겠다는 서약을 하기까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라.
10. 가족과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결혼하라.

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위의 사항들 외에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지침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종교적 확신과 조화가 가능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의 조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없는(상대방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부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갖고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의사소통 능력은 부부 사이에 조화롭게 친밀감을 키워 나가는 기초입니다. 의사소통은 마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속으로 사랑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더라도 마치 두 가지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의견을 잘 파악할 수 없다면 갈등이 심화됩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3. 문제 해결능력이 있는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의견이 대립될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의견을 노예처럼 따르다가 손해를 본 다음에는 억울한 심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진실과 인애가없는 세대 (호4:1-19) 찬181장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왜 탄식하셨습니까? 첫째,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보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회개로 이끄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그들은 거짓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계시가 없는 개인과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구원계시인 성경을 믿을 때만 참 구원을 받으며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인애, 인애가 없는 진실은 모두 가짜입니다. 사람관계의 기본인 사랑은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깁니다(롬5:5).

화 의가 메마른 세대 (호11:12-12:14) 찬265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선 곧,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표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3절은 야곱의 역사를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브니엘사건을 통해 보여진 그의 탐욕의 껍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벗겨진 것처럼 호세아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죽음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제하십니다(갈2:20). 둘째, 하

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죄는 피상적이 아니고 근원적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버리고 탐욕이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개인 가정 사회에 만연해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우리시대의 교회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수 은혜의 근원 (호2:21-22) 찬178장

호세아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은혜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은혜의 주가 자기백성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호세아의 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루마, 암미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때만 하늘, 땅, 곡식, 열매 그리고 이스라엘에 형통을 가져옵니다(1:11). 언

약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쳐집니다. 둘째, 하나님중심주의가 만사의 근원이야 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에 대한 사도의 해결책은 인위적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고전2:2).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기적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은혜의 강수를 체험합니다.

목 두 마음 (호10:2) 찬484장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본 죄, 외식을 어떻게 다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두 마음 품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의 중심이며 전인의 좌소인 마음인 "영혼", "속사람", "영" 그리고 "중심"으로 표현한 성경은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호세아시대의 문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놓인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 더럽혀져 이중마음을 가진 외식

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제단을 파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장소인 제단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받으실 영광이 다른 것에 돌려질 때 가져왔던 제사장은 그 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애굽의 중앙에 성소를 두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롬12:1-2).

금 예배의 환상 (사66:1-24) 찬138장

구원과 심판이 계속되는 우리시대에 참 예배자의 자화상을 보인 20-21절은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첫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를 보입니다(1-11). 이 사야가 본 하늘성전 여호와 앞에 드러지는 스랍의 찬송은 종말에 나타날 예배자의 그림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참 예배가 드러집니다(1-2, 사57:15, 마5:3). 둘째, 영광과 평강이 충만했습니다(12-17). 참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은 강수같은 평강과

시내같은 영광입니다. 여기 영광이란 무게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한 것에 무게를 두는 이 약한시대 오직 하나님께만 무게를 두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그는 전도자로 나타납니다(18-24). 예배자는 열방을 향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자기백성을 구해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로 삼습니다.

토 반석 위에 선 신자 (사17:1-11) 찬188장

본문에 여호와와 신자의 관계를 반석으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강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강한 반석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우상은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인 우상숭배를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듯이 세상은 우상숭배를 반석으로

삼았기에 멸망에 떨어져 쇠약하여 마침내 망합니다. 둘째, 여호와 경외신앙이 반석입니다. 다메섹과 동맹함이 반석인줄 안 이스라엘은 여호와 경외신앙이 능력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종말의 날에 진정한 반석은 하나님뿐입니다(10). 셋째, 성령의 연합을 힘써야 합니다. 두 나라의 동맹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사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서드니 안우리 선교센터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공간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회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674-372-6100 (Ext. 6336), 674-377-2619(한국어)
E-mail: ps@grace.edu, gskomen@grace.edu

2012 선교올림픽...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월 23-27일 윗튼대학 빌리그래함 센터

“지구촌 완전복음화” 비전과 열망 품고 5천여 명 집결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 끝 선교!’의 슬로건을 걸고 7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시카고 윗튼대학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가 개최된다.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는 선교사와 목회자는 물론,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교계 리더 5,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복음화의 중대한 과업을 재천명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부상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는 세계 선교의 대사명(Great Commission)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인류애의 대계명(Great Commandment)을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무려 169개국에 23,331명에 이르는 한인선교사들이 오대양 육대주에 나가 헌신하고 있고 선교사 자녀도 무려 15,913명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구촌 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 of Global Evangelization)에 대한 긴박성을 절감하고 있는 범세계 교회들과 선교운동단체들은 급세기를 “천국추수의 최종 년대”(The Final Era of the Harvest for the Kingdom of God)로 상정하고 도처에서 총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2)는 다시 한 번 우리 한국교회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The 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 대회에 앞서 20일(금)부터 23일(월)까지 개최되는 14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F, 대표회장 최광규 선교사, 공동회장 강대홍, 강성일, 이극범 선교사)에는 1200여명의 선교사가 집결될 예정이며 박조준 목사(세계지도력개발),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이재호 목사(휴스턴중앙장로교회), 고기홍 목사(서울평강교회), 김재규 목사(성수교회), 삼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이필재 목사(갈보리교회), 이철 목사(남서요교회) 등이



2008년 대회 모습

강사로 선다.

이어 23일부터 열리는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김만우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나광삼 목사(큰무리교회),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이상남 목사(세계대교회), 이상진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이승제 목사(체리힐한인교)

△선택강좌 ▲선교일반-선교신학, 선교역사 선교동향, 선교전망, 선교운동, 선교와 기도, 선교와 핏박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한인세계선교-한국교회와 세계선교, 한인디아스포라와 세계선교, 한국형 선교, 한인 세계선교 현황 ▲교회와 선교-지역사회 선교활성화, 목회자와 선교,



회), 이승중 목사(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장영준 목사(퀸즈장로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공동대회장으로 헌신한다(가나다순).

또한 세기의 설교가이며 탁월한 저술가로 정평 있는 존 파이퍼 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오정현 목사, 열방대학 총장인 로렌 커닝햄 목사를 비롯한 한인, 외국인, 선교사 등을 강사 200여명을 초청해 선택강좌를 준비했으며 한인세계선교의 과제를 함께 나누고 발제와 토론이 필요한 당면 주제들로 다양한 선교전략포럼을 갖기도 한다.

대회 기간 중에 진행될 선택강좌 및 선포포럼은 다음과 같다.

지역교회선교정책/훈련/운영, 평신도와 선교, 여성과 선교, 차세대와 선교 ▲타종교/타문화선교-미전도종족선교, 타문화선교, 타종교권 선교, 창의적 접근지역선교, 북한선교, 중국선교, 이슬람권선교, 불교/힌두권 선교, 이단/세속문화권선교, 가톨릭권 선교, 유대인 선교 ▲선교사/선교헌신자-선교사의 인격/영성, 선교사과정/복지, 여성/독신선교사, 선교 헌신자, 선교사자녀교육 ▲선교사역전략-팀/네트워크사역, 전도/교회개척사역, 현지인선교, 신학교/학교/훈련사역, 치유사역, 구제/개발선교, 선교동원, 전방위선교, 장애인선교, 어린이선교 ▲단기/장신도/전문인선교-전문인/자비랑

선교, 의료선교, 단기선교, 성경번역, NGO선교, IT 선교.

△선교포럼 ▲Target2030 선교전략포럼-강승삼(KWMA)/한정국(KWMA) ▲한국형선교연구개발포럼-조명순(한국형선교개발원장), 한정국(KWMA) ▲미전도종족선교전략포럼-안강희(GAP), 김혜택(GAP) ▲북한선교전략포럼-임현수(GAP), 김지성(LA 글로벌선교교회) ▲4/14창 어린이선교전략포럼-김남수(4/14 Window), 이은무(GEN) ▲한인디아스포라선교동원전략포럼-송민호(토론토영락교회), 정민용(Wycliffe) ▲한국교회 위기 진단 및 회복을 위한 포럼-이승중(아깨두사역원), 박형은(동양선교교회) ▲여성선교전략포럼-이형자(햇불선교재단), 송성자(KWMC 여성선교운동본부장), 차세대목회자/선교지도자 전략포럼-고인호(PCA), 정민영(여버나), 노진산(LFCC) ▲전문인선교전략포럼-호성기(PGM), 정인수(PGM) ▲북미주 한인선교단체포럼-이은무(킵넷), 백운영(GP), 김정환(GMAN) ▲평신도선교전략포럼-유효명(KWMC), 이상진(KWMC) ▲중국선교전략포럼-송영결/성진호/고주명 ▲이슬람 선교전략포럼-김만우(KWMC), 공일주(요르단대학교), 이만석(이란) ▲의료선교전략포럼-강준희, 김용식, 이상찬 ▲다민족선교전략포럼-배현찬/최상진 ▲단기선교전략포럼-김동승(북미원주민선교연합회)김정환(선미니스트리) ▲구제 및 NGO선교전략포럼-박준서(월드비전), 정정섭(국제기아대책기구)등이다.

한편 선교사대회(7/20-23) 기간 중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한인세계선교대회(7/23-27)기간 중에는 선교사 자녀 및 참가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선교대회를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선교사)와 GKYM이 담당하며 선교사대회기간 중 열리는 MK Youth대회는 고현진 전도사가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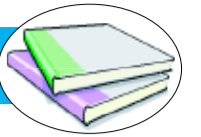
또한 70여개의 부스도 마련돼 선교지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선교사 사역 사진 전시회도 마련된다. 특히 시카고기독교의료선교회(회장 신홍식 장로)에서는 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의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지는 취재기자를 파견, 현장 취재를 통해 생동감 있는 기사를 제공하며 미주크리스천신문 부스를 마련, 신문을 배부하고 2013년 주소록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선교사들과 선교정보교환 및 구독후원도 연결할 예정이다.

본 대회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kwmc.com 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성공목회 노하우”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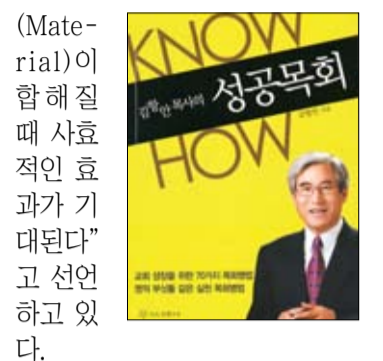
한국교회정보센터 발행

김항안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가 ‘성공목회 노하우’와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을 발간했다.

‘성공목회 노하우’

‘성공목회 노하우’에는 70가지의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방법을 제시하고 목회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꾸렸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시켜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런 능력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실천 목회”라고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이다. 인간의 영이 육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가시적(Know How)이고 구체적인 방법(Know Where)이 없이는 육신의 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형식(Form)과 방법



(Material)이 함께 질 때 사효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총 390쪽으로 구성된 본서는 ‘천국민주주의와 만장일치’, ‘가정 헌신예배’, ‘대 탈출작전’, ‘착한죽음의 연습과 유서 만들기’, ‘올해의 말씀 갖기 운동’, ‘사랑의 순교 현장 갖기’ 등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70가지의 노하우를 제시했으며 절기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수록했다.

70가지 교회성장방법 소개 기도는 새벽에 먹는 보약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에 대해 저자 김항안 목사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영혼의 보약이 된다. 이 기도문이 새벽에 먹는 좋은 보약이 되기 바란다”라며, 이 한권의 책을 통해 365일 기도하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신이 나는 것처럼 기도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결코 성도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말 것”을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14의 말씀을 들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성도하는 성도대회를 벌이는 것이나 한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으로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



력을 부여하시므로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수록했다. 본서에는 365일 새벽마다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수록하고 있어 새벽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기도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모범 기도서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항안 목사는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매년 목회자의 날을 기해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들의 영육간의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 많은 도서 출간과 교회 행사 프로그램, 교회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kccdc.net 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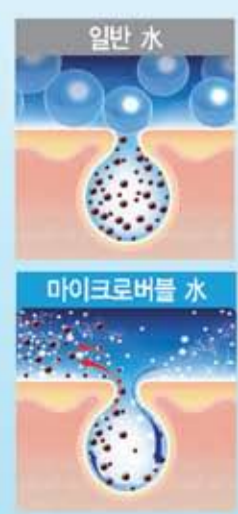
(이성자 기자)



JoyLA.com 입점기념 빅세일 이벤트
2012.6.15~7.15 까지 구매고객에게 \$399.99 → \$299.99로 드립니다.

설치 간편한 버블린으로 마이크로 버블 물을 생활화하세요!!!

- 01. 우수한 피부보습 및 가려움증 완화
피부의 보습도를 향상시켜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줌
- 02. 살균효과
OH등의 프리라리칼에 의한 물속 세균들의 살균에 효과가 있음
- 03. 우수한 피부세정력 및 피부미용효과
모공을 막고 있던 노폐물을 제거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활력 있게 해줌
- 04. 산림욕 효과
산림지대 보다 약 100배 이상의 많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산림욕의 효과를 가정에서 느낄 수 있음
- 05. 음이온발생
물 속에 음이온 발생(200,000~300,000 ion/cc) 시켜 샤워 중 음이온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음
- 06. 피로회복효과
마이크로버블의 신체 자극을 통하여 피부가 빠르게 회복 되도록 도와줌



- 1. 설치간편
샤워헤드 타입으로 설치가 매우간편
- 2. 유량조절핸들장치
유량및 마이크로 버블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장착되어 있음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